

짐바브웨

정보수정일자: 2015. 12. 21.

작성처: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KOTRA국가정보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제 4유형을 적용하여 공개합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kotra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 국가개요 / 1
- 정치사회동향 / 3
- 한국과의 주요이슈 / 13

II. 경제

- 경제동향 및 전망 / 15
- 주요 산업 동향 / 19
-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 28

III. 무역

1. 교역동향
 - 수출입 동향 / 31
 -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 33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 수입규제제도 / 35
 - 대한수입규제동향 / 37
 - 관세제도 / 38
 - 주요인증제도 / 39
 - 지적재산권 / 40
 - 통관운송 / 41
 - 시장특성 / 42
 - 바이어 발굴 / 43
 -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 45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 48
 - 외국기업 투자동향 / 49
 - 우리기업 투자동향 / 51
 - 투자진출 성공, 실패사례 / 52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 54
 - 진출형태별 절차 / 58
 - 투자입지여건 / 61
 - 무역투자진출 시 애로사항 / 65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 67
 - 조세제도 / 68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 70

V. Business 참고정보

- 물가정보 / 71
- 비즈니스 에티켓 / 72
- 이주정착 가이드 / 74
- 생활여건 / 78
- 취향정보 / 82
- 출입국 및 비자제도 / 83
- 관광, 호텔, 식당, 통역 / 85
- 출장 시 유의 및 참고사항 / 89
-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 94
- 유관기관 웹사이트 / 95



자료: EIU

KOTRA

COUNTRY PROFILE

1965~2015

KOTRA provides extensive market and business information on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rough its Country Profile service. Launched in 1965, the service evolved from paper-based publications to a web-based database available through www.globalwindow.org.

CONTENT

COUNTRY BACKGROUND

- 001. Economic trends & outlook
- 002. Industrial trends
- 003. Regional trade agreements

ECONOMY

- 001. Basic information
- 002. Politics & society
- 003. Major issues with Korea

TRADE

1. Trade Trends

- 001. Export & Import
- 002. Trade with Korea

2. Trade-Related Laws & Regulations

- 001. Import regulations
- 002. Customs duty
- 003. Certification system
- 004. Intellectual property
- 005. Customs & transport

3. Export Environment

- 001. Market features
- 002. How to find a buyer
- 003. Major exhibitions
- 004. Tips for doing business
- 005. Export grievances
- 006. Success & failure stories
- 007. Promising export items

INVESTMENT

1. Investment Environment & Trends

- 001. Investment environment
- 002. Foreign investment
- 003. Korean companies' investment
- 004. Success & failure stories

2.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System

- 001. Investment promotion laws
- 002. Forms of investment & procedures
- 003. Closure & liquidation of company
- 004. Investment sites
- 005. Investment grievances

3. Management of Local Business

- 001. Labor
- 002. Taxation
- 003. Financial system
- 004. Foreign exchange system & fund sourcing

BUSINESS REFERENCES

- 001. Price of living
- 002. Business etiquette
- 003. Settlement guide
- 004. Business trips
- 005. Promising jobs
- 006. Useful websites
- 007. KOTRA's business centers

123
OFFICE

83
COUNTRY

GOT SOMETHING TO SHARE?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US, KOTRA IS ALWAYS READY TO LISTEN.

Contacts: Ms. YuYong Jung, 82-02-3460-7514 (Project manager of KOTRA Country Profile)

globalwindow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명	짐바브웨 공화국(Republic of Zimbabwe)
위치	아프리카 남부
면적	390.58천 km ² (한반도의 1.8배)
기후	아열대
수도	하라레(Harare)
인구	1,300만 명 (2014년)
주요도시	블라와요(Bulawayo), 치통비자(Chitungwizab), 궤루(Gweru)
인종구성	아프리카인 98%(Shona족 82%, Ndebele족 14%), 혼혈 및 아시아인 1%, 백인 1% 미만
언어	영어(공용어), 쇼나(Shona)어, 은데벨레(Ndebele) 어, 기타 토착어
종교	기독교와 토착종교 혼합 50%, 기독교 25%, 토착종교 24%, 이슬람 1%
건국일	1980년 4월 18일(영국으로부터 독립)
정부형태	공화제(대통령중심제)
국가원수	Robert Gabriel Mugabe 대통령

자료: Economist Intelligence Unit

나. 경제 지표

국내총생산	US \$135억 (2013년)
경제성장률	3.1% (2014년)
1인당국민소득	US \$ 896 (2014년)
실업률	95% (2015년)
물가 상승률	7.6% (2015년)
화폐단위	미국 달러(\$), 짐바브웨 달러(Z\$), 남아공 란드화 등 통용
환율	US\$1=ZWD371.20(2015년)
외채	US\$ 9,913백만 (2015년)
외화보유고	US\$ 457백만 (2013년)
산업구조	서비스업 54.5%, 제조업 25.4%, 농업 20.1% (2014년)
교역규모	○ 수출: US\$3.284 (단위 10억, 2014년) ○ 수입: US\$4.725 (단위 10억, 2014년)

교역 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백금, 면화, 담배, 금, 합금, 식물 ○ 수입: 연료, 화학제품, 기계류, 운송장비류, 식료품
-------------	--

자료: CIA world fact book, World Bank,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짐바브웨 관계

체결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0년 10월 친선협력협정 ○ 1980년 10월 경제과학기술 및 문화협력협정 ○ 1980년 10월 무역협정 ○ 1981년 4월 문화협정 ○ 1983년 6월 상사협정 ○ 1985년 6월 광산개발 합의서 ○ 1988년 12월 경찰분야 협력협정 ○ 2006년 5월 의료분야 협력 MOU ○ 2010년 5월 투자보장협정
교역규모 (우리나라 대 짐바브웨) 단위: US\$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수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 14,898 - 2007년 : 14,494 - 2008년 : 9,208 - 2009년 : 13,788 - 2010년 : 20,750 - 2011년 : 28,336 - 2012년 : 28,552 - 2013년 : 25,899 - 2014년 : 27,368 - 2015년 : 21,220 ○ 우리나라 수입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 13,390 - 2007년 : 50,291 - 2008년 : 38,139 - 2009년 : 4,839 - 2010년 : 2,639 - 2011년 : 7,244 - 2012년 : 1,548 - 2013년 : 13,226 - 2014년 : 4,731 - 2015년 : 6,584
교역 품 (우리나라 대 짐바브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수출 : 합성수지, 기타정밀화학원료, 의약품 등 ○ 우리나라 수입 : 연초류, 기타비금속광물, 가죽, 조각품 등
교민	약 52세대 99여명(2015)

자료: World Trade Atlas, 한국무역협회, 주짐바브웨 대사관

2. 정치사회 동향

가. 역사요약

짐바브웨의 원주민은 부시먼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약 600년 전에는 쇼나족의 모노모타파왕조가 풍부한 금광을 바탕으로 강력한 세력을 떨치면서 짐바브웨를 수도로 삼고 번영을 누렸다. 그러나 17세기부터 금이 고갈됨에 따라 농목축 중심의 경제로 바뀌어 지방분권적 혈족사회로 분열하였다. 당시 이들 부족은 인도양에서는 포르투갈 세력, 남부에서는 줄루족의 세력에 밀려 오늘날의 마쇼날란드 지방으로 이동하였다. 또한 이 지역으로 들어온 줄루족은 19세기에 남쪽 지방에서 침입해 온 보어인(人)과 충돌, 지금의 불라와요 부근으로 물러났는데 이들은 은데벨레족이라 하고 이들이 차지한 영토를 마타벨렐란드라고 불렀다.

탐험가 D.리빙스턴이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한 1885년경부터 영국과 접촉이 시작되었고 1870년 왕위에 오른 마타벨렐란드의 로벵글러는 영국과 조약을 체결하고 광업권을 부여하였다. 대신 영국은 연금과 무기를 대주면서 보호해주었고 1891년 마쇼날란드와 마타벨렐란드는 정식으로 영국보호령이 되었다. 그 후 트란스발에서 보어인의 침략, 로벵글러의 반란(1893)을 거쳐 1895년에 '로디지아'(세실로즈의 이름)라는 지명이 생겼다.

1898년에는 남로디지아 식민지가 되었으며 1901년 보호령은 해체되었다. 1923년 10월에는 자치정부를 가진 식민지가 되었으며 1953년 8월 로디지아-니아살란드 연방을 형성하였으나 1963년 말에 해체되었다. 1961년말에는 은코모를 당수로 하여 결성된 ZAPU(짐바브웨 아프리카 인민동맹)가 독립운동을 추진하였으나 1962년 말 더욱 과격한 투쟁을 요구하는 ZANU(짐바브웨 아프리카 민족동맹)가 시톨레를 당수로 하여 결성되었다.

이러한 민족 독립운동단체의 분열과 대립은 1965년 11월 스미스에 의한 백인정권의 일방적 독립선언을 가능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언 스미스 백인정권은 1969년 아프리카인 6,643명을 포함한 8만 8217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신헌법 초안과 공화국 선언의 가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아프리카인의 72.5%, 전체적으로는 약 81%의 찬성을 얻었다. 그 후 10여 년 동안 스미스 정권을 적대시하는 흑인 해방운동 단체 사이에서 극히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를 겪었다.

1977년 말에는 백인정권과의 협상을 통해 흑인의 다수지배로 이행할 것을 주장하는 온건파 3당과 투쟁에 의하여 흑인국가를 건설하자는 급진파의 2정당으로 나뉘었으며 후자는 국외에 거점을 두고 게릴라전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흑인세력의 강화와 함께 국제적 비난에 부닥쳐 정세가 불리해졌음을 간파한 스미스 정권은 1979년 3월 흑인 온건파와의 타협으로 문제를 국내에서 해결하기로 합의, 같은 해 12월 흑백공동내각으로 구성된 잠정 정권이 수립되었다.

이어서 1979년 1월에는 1969년에 제정된 헌법 대신 새 헌법초안을 작성하여 백인들만의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압도적인 지지를 얻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명도 ‘짐바브웨 로디지아’로 바뀌고 과도기적 체제를 갖추었다. 1979년 4월 새 헌법에 기초를 둔 단원제의회(백인의석 28석, 흑인의석 72석)의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백인 의석은 모두 스미스의 로디지아 전선이 차지하고 흑인의석을 무조레와의 통일 아프리카 민족평의회(UANC)가 51석, 시톨레가 이끄는 아프리카 민족평의회(ANC)12석, 통일 민족연방당(UNFO)이 9석을 획득하였다.

따라서 무조레와가 총리로 취임하고 전총리 스미스는 무임소장관이 되었으나 시톨레는 선거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무조레와와 대립했다. 또한 급진파인 ZANU와 ZAPU가 연합한 애국전선은 총선거를 보이콧하고 게릴라 활동으로 반정부투쟁을 계속하였다. 더욱이 이 정권은 게릴라 단체를 일방적으로 배제하였기 때문에 UN(United Nation) 가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해 말 런던에서 모든 당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헌회의가 열렸으며 이 회의에서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1980년 2월에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에서는 로버트 무가베가 이끄는 좌경 민족주의 게릴라 단체인 ZANUIPF(짐바브웨 아프리카 민족동맹)가 전체 의석 100석 가운데 57석을 차지하였으며 은코모가 이끄는 ZAPU(애국전선)는 20석을 획득하였다. 같은 해 4월 18일 국가원수인 대통령에 카나안 바나나가, 총리에 무가베가 취임함으로써 영국으로부터 정식으로 독립하였다.

자료: 국제통상

나. 정치체제 및 구조

1) 개요

정부 형태	대통령 중심제
주요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Robert Gabriel Mugabe ○ 부 대통령 Emmerson Mnangagwa, Phelekezela Mphoko ○ 외교부 장관 Simbarashe Mumbengegwi
의회	○ 양원제(상원 78석, 하원 270석)

자료: EIU

짐바브웨는 새 헌법에 따르면 정체는 공화제이고 정부는 내각책임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의회는 1989년 11월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헌법 개정하여 의원수를 150명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독립 후에도 정치정세는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1981년 2월에는 무가메파와 은코모파 사이에 무력충돌이 일어나 30여 명이 넘는 사망자를 냈다.

또한 1982년 2월에는 은코모파 각료 4명이 쿠데타 음모혐의로 축출되었으며 4월에는 무가베 수상의 관저가 습격을 받았다. 이 밖에 백인 유괴사건, 공군기지 피습사건을 비롯한 갖가지 반정부활동이 잇따르고 있으며 짐바브웨의 경제적 구심점인 백인들의 국외탈출문제, 150만여 명이나 되는 남민의 국제귀환문제 등 해결해야 할 어려움이 쌓여 있다.

따라서 무가베 정권은 사회주의를 내세우면서도 백인과의 융화를 꾀하는 한편 자본주의 체제를 존속시키고 있다. 1999년 현재 무가베 정권은 19년동안 장기 집권하고 있고 헌법 개정을 위해 1999년 4월에 설치된 대통령 위원회가 헌법 개정 자료를 수립하고 있으며 1999년 12월경에 의회에 제출 예정이다.

외교는 비동맹중립을 기조로 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외교관계를 단절하였으며 80년 9월에는 153번째 회원국으로서 UN에도 가입하였다. 1981년 2월에는 소련과 국교를 수립하였으나 친중국 노선을 걷고 있다. OAU, SADC를 통한 지역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제 실리 추구 성향을 가지고 있다.

자료: 국제통상

2) 대통령

짐바브웨의 현 대통령은 Robert Gabriel Mugabe로, 2명의 부통령이 보좌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안보위원회(National Security Council) 의장직을 수행하며, 국방군 최고사령관으로서 군 통수권 행사, 선전포고 및 종전, 계엄선포 및 종료, 사면 권한, 외교사절 파견 및 접수, 국회 해산권(총리와 협의)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은 내각의 의장이며, 총리 등의 자문을 거쳐 여야 합의에 따른 장관직을 배분하고 임명한다. 짐바브웨에서는 1990년 이후 국민직접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며 임기는 5년이다.

3) 내각

지난 7월 대선에서 승리해 5년 재임기를 확보한 무가베 대통령은 지난 4년간 그와 함께 내각을 구성한 야당 민주변화운동(MDC)을 배제한 독자 내각을 구성했다. 과거 33개 부처에서 26개 부처로 축소된 새 내각에는 그동안 유력한 후계자로 간주된 므낭가과 국방장관이 법무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 눈에 띈다. 강경파인 므낭가과는 조이스 무주루 부통령과 무가베 대통령이 후계 구도를 놓고 경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신임 국방장관은 시드니 세케라마이 전 국가안보부장관이 맡았다. 재무부장관에는 변호사 출신인 패트릭 치나마사 전 법무장관이 임명됐으며 과거 언론 탄압에 앞장선 강경파 조너선 모요가 또다시 공보부장관에 기용됐다. 기업토착화부장관에는 프란시스 네마 전 환경부장관이, 광업부장관에는 월터 치다과 전 공기업부 차관이 각각 임명됐다.

4) 짐바브웨 주요 정당

- 여당
 - ZANU-PF(Zimbabwe African National Union-Patriotic Front)
 - 1980년 이후로 지금까지 여당 유지
- 야당
 - MDC(Movement for Democratic Change)

5) 사법부

- 대법원(Supreme Court)
 -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 5명으로 구성
- 고등법원(Hugh Court)
 - 18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시 대통령이 임명함
- 지방법원(Regional Court) 및 치안법원(Maistrate's Court 존재)

다. 행정권

1) 토지개혁정책(백인 소유 농장 환수 및 흑인에 대한 재분배) 강행

짐바브웨 토지개혁은 독립 당시 극히 불균등했던 토지소유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약 6,000 개, 1,570만 헥타르에 이르는 백인 소유 농장을 유상 환수하여 흑인들에게 재분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독립 당시 흑인 소유 농지는 전체 농지의 5%에 해당하는 약 140만 헥타르의 상업 농지와 1,640만 헥타르의 척박한 영세농지에 불과하였다.

Mugabe 정부는 영국의 자금 지원에 힘입어 1997년까지 약 350만 헥타르의 백인 농지를 유상으로 환수하여 재분배하였으나 1990년대 말부터는 재향군인들이 경제적 궁핍 등을 이유로 소요사태를 일으키자 이를 회유하기 위해 과격한 토지개혁 정책을 단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재향군인들에 의한 백인 농장 습격 및 무단 점거 등 불법 행위가 자행되자 영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자금 지원 및 원조를 중단하였다.

이에 Mugabe 정부는 2002년 약 2900개 백인 소유 상업농장에 대해 강제퇴거를 명령한 데 이어, 2005년에는 헌법 개정을 통해 토지개혁 관련 법적 소송을 금지하는 등 강경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토지개혁 문제가 짐바브웨와 서방 국가들 간 정치적 대립과 갈등의 핵심 사안으로 부상하였다.

토지개혁은 현재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농장을 재분배 받은 흑인들 상당수가 정착 기피 현상을 보이거나 농장 운영 경험 및 종자, 비료, 장비, 전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농업 생산성이 크게 저하되었다. 이러한 대규모 상업영농체제의 붕괴는 과거 남부 아프리카의 식량 수출국이었던 짐바브웨를 최악의 식량부족국가로 전락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2) 야당 MDC의 부상

1990년대 후반 들어 나타난 전반적인 민심 이반 현상을 배경으로, 짐바브웨 전국노조(ZCTU) 위원장 출신인 Morgan Tsvangirai(츠방기라이)는 1999년 MDC(Movement for Democratic Change)를 창당하였다. 2000년 2월 Mugabe 정권에 대한 신임투표 성격을 띤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부결을 이끌어낸 여세를 몰아, 2000년 6월의 총선에서 57석을 확보하여 간신히 과반의석(62석)을 확보한 여당 ZANU-PF를 크게 위협하였다.

이어, Tsvangirai 당수는 2002년 3월 실시된 대선에서 42%의 득표율로 56%를 확보한 Mugabe 대통령과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MDC는 2005년 3월 실시된 총선에서도 41석을 확보(여당 ZANU-PF는 78석) 하는 등 여당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제1 야당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굳혔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 야당에게 1~2석만을 허용하면서 사실상 일당독재를 누려온 여당 ZANU PF에게 큰 타격을 안겼으며, 향후 짐바브웨 최초의 정권교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Mugabe 정권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Mugabe 정부와 MDC간의 강경한 대립 구도가 형성되었다.

당초 짐바브웨 대선은 2008년, 총선은 2010년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SADC)에 의해 짐바브웨 여야간 대화 중재자로 임명된 남아공 Mbeki 대통령의 주선에 힘입어, 대선 및 총선(상, 하원)을 독립 이래 최초로 동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합의가 2007년 전격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감시 하에 2008년 3월 29일 선거가 실시되었으나 상, 하원 선거 결과는 즉시 발표된 반면 대선 투표 결과는 선거 후 1개월이나 지난 2008년 5월 2일에야 발표되었다.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Mugabe 정부에 대한 강력한 비난이 쏟아졌으며 특히 미국과 영국 등의 서방 국가들은 짐바브웨 선거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려는 시도를 하는 등 압력을 가했다.

대선 1차 투표 결과, Mugabe 대통령은 43.2%의 득표율에 그쳐 47.9%를 획득한 Tsvangirai 후보에게 뒤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당 ZANU-PF도 역사상 최초로 하원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총 210석중 97석 확보)하고, 상원 선거에서도 직선제 선출 대상 의석 60석 중 30석만 확보하는 등 사실상 총선에서도 패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인 MDC는 Tsvangirai 후보가 1차 투표에서 50% 이상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대선 1차 투표에서 모든 후보가 50% 이상 득표에 실패함에 따라 2008년 6월 27일, Mugabe 대통령과 Tsvangirai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였으나 Tsvangirai 후보는 신변 위협을 이유로 중도에 사퇴하였다. Mugabe 대통령이 득표율 90.2%로 최종 당선된 것으로 집계되면서, 짐바브웨 여야 간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또한 악화되었다. 서방국가들은 짐바브웨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상정하였으나 중국 및 러시아 등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었으며, 이에 EU 및 미국은 짐바브웨에 대한 기존 제재조치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후, 남아공 Mbeki 대통령의 중재로 짐바브웨 여야간 정국난 타개를 위한 정치협상을 개시기로 전격 합의하였다. 이에 2009년 1월 여야간 권력 공유 협상을 타결하여 2009년 2월 13일에 Mugabe를 대통령으로, Tsvangirai를 총리로 하는 통합정부가 구성되었다.

그 이후, 2013년 7월 31일 진행된 선거는 이전의 선거와 같이 되리라는 우려와는 다르게 Mugabe의 ZANU-PF당이 크게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대통령 및 의회선거의 결과는 큰 의문을 품게 하였다. 서방제국과 반대 세력들이 강한 부정선거를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Mugabe와 Tsvangirai가 각각 61%, 34%의 표를 얻었고, ZANU-PF는 158석, MDC는 49석을 확보하였다. 선거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이 되나, 예상보다 저조했던 MDC의 득표율은 당 지지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다음 선거는 2018년에 개최된다. Mugabe가 2014년에 90세가 되고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보도됨에 따라, 대선에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여당의 많은 사람들이 2015년 중순에 Mugabe가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만약 Mugabe가 사퇴를 한다면, 결정된 확실한 후계자는 없지만, ZANU-PF의 두 당파 (부대통령인 Joice Mujuru와 법무장관 Emmerson Mnangagwa) 사이의 경쟁은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후기 식민지 역사를 돌이켜 보았을 때, 대통령이 중기에 정권을 넘겨줬던 전례가 없었고, 현재 명백한 후계자가 있지도 않은 상황이다. 그러므로 Mugabe의 은퇴로 다양한 후보자의 지지자들로 인한 후계자의 권력 다툼, 또는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는 시위로 인해 불이 번질 수 있다. 2018년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또다시 긴장감이 고조 될 수 있다. 지난 세 차례의 의심스러웠던 대선과 ZANU-PF의 승리로 인해, MDC 지지자들은 대선 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으나, 이는 무질서한 정권교체의 가능성 또한 증가시킬 수 있다.

지도층의 변화는 전 재무장관 Tendai Biti와 진보적이고 젊은 Nelson Chamisa를 포함하여 MDC의 유력한 후보를 자절 시키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사실상 ZANU-PF가 짐바브웨를 38년간 통치하면서 2018년 대선을 통한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정권을 양도하지 않는 정당의 입장을 보았을 때, 더 이상의 ZANU-PF의 승리는 배제될 수 없다.

3) 서방국가들과의 관계 악화 및 동방정책 추진

영국, 미국, EU 등 서방 국가들은 짐바브웨 정부의 토지개혁 강행 과정에서 야기된 민주주의와 법치의 심각한 훼손과, 총선 및 대선 과정에서의 야당 및 언론 탄압 등을 이유로 짐바브웨에 대해 인도적 원조를 제외한 일체의 경제원조를 중단하고, 제재조치를 부과하였다. 짐바브웨 정부 고위 인사들의 자국 내 여행 금지, 자국 내 자산 동결 및 대 짐바브웨 무기 금수 조치 등이 이에 해당하며, 제재조치는 매년 연장되고 있다. 한편 짐바브웨 정부는 영연방의 자격 정지 결정에 대응하여 2003년 12월 영연방을 자진해서 탈퇴하였다.

이러한 제재조치는 서방국가들과 짐바브웨 간 경제교류 자체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짐바브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국제사회에 확산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미국, 영국 등 서방국가들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IMF 및 World Bank 등 국제금융기구는 대 짐바브웨 자금지원을 중단하고, 짐바브웨의 투표권을 중지시킨 상태이다.

이에 대해 짐바브웨 정부는 서방 선진국들의 제재조치가 영국의 주도 하에 취해진 것으로 단정하고, 2002년 11월 영국 고위인사들에 대한 여행금지 및 자산동결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복조치를 부과하는 등 서방국가들에 대해 강경하게 맞대응 하고 있다. 한편 서방측과의 관계악화에 따라 중국, 인도, 이란,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과 정치, 경제, 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이라는 이름 하에 추진하였다.

2013년 짐바브웨는 국제기구에서의 부패인식 지수와 국가 투명성에 관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 부정한 공공기금 사용으로 인해 정부의 경영정책이 계획대로 실행될 지 불안감이 있다.

선거로 인해 국제관계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이다. EU는 국영 ZMDC의 제재를 없앴으나, OECD, IMF, World Bank에서는 장기적인 재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짐바브웨는 서양국가보다는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에게 무역과 도움을 요청하려는 상황이다.

국제 관계는 7 월 투표 결과에 따라 흐름대로 유지 될 것이며, 이 결과는 남부 아프리카 개발 공동체(SADC)에서 인정받았지만, 서방 국가에 의해 비판 받았다. 짐바브웨에 대한 SADC의 입장은 놀랍지 않다. 해당 지역의 여러 지도층과 오랜 관계를 지속하여, 15개 지역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Mugabe와 SADC의 지도층은 장기간의 정치적 위기에도 계속 나아가려는 의지가 강하다. 이러한 이유와 SADC의 제한된 민주적 신임장은 짐바브웨의 국제적 평판을 복원시키기에 충분치 않을 것이다. 그로 인해 정권을 상대로 미국과 EU는 의도적인 제재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EU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짐바브웨의 Marange, 5개 다이아몬드 광산을 운영하는 국영 짐바브웨 광업 개발공사를 2014년 1월 벨기에 기반의 Antwerp World Diamond 센터에 Marange 다이아몬드를 원활하게 경매에 부치기 위해, 여행금지 및 자산 동결 회사

목록에서 제외시켰다. 이러한 제재의 경감에도 불구하고, IMF와 World Bank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새로운 OECD 국가와의 관계와 대외 원조의 유입은 중단기적의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정부의 정책의제는 아직 불확실하나, 어떤 경우에도 짐바브웨의 정치적 난국은 국제 및 지역의 인내심을 침식하고 있다.

또한, 기증자의 주의가 시리아와 같은 타지역으로 옮겨지고, 유럽의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인해 지원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ZANU-PF는 무역과 대외 원조의 대상으로 아시아에 눈길을 주고 있다. 2013년 후반 정부관계자는 중국을 방문하여 40억 미불의 대출을 시도하였다고 보도(명백하게 실패하였던)되었지만, 정부는 담보로 니켈, 다이아몬드와 금 광산을 제공하여 더 넓은 아시아의 지원을 얻으려 하고 있다.

4) 정책 동향,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

□ 정책동향

2013년 6월 IMF는 10년의 기간 중 첫 펀드 약관으로 직원 감시 프로그램(SMP)을 승인하였다. 2014년 1월 SMP는 국가기관이 더욱 정책을 강화하고 두드러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 선거의 결과에 따른 경제 정책 수립의 방향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면서도 6개월 연장되었다. 예를 들어, 국가가 이미 수익의 50% 이상을 공공부문에 대해 쓰고 있다는 사실을 묵살한 채, Mugabe가 경찰과 문관을 포함하여 육군에 대한 봉급이 늘 것으로 약속하였다. 그러한 공약과 1,200개의 외국인 소유의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협박을 준수하여 펀드와 기타 투자와 관계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SMP는 재정지원을 수반하지 않지만 성공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결국 채무 구조 조정 합의를 통해 다자 기관에서 대출을 재개할 중요한 움직임이다.

어찌했든, 대체로 정부의 해외 투자가와 국제 금융 기관에 대한 적대적 접근과 경제관리에 대한 정치적 의제의 우선순위로 확실히 짐바브웨는 공공 재정관리, 다이아몬드 수익의 투명성 증가, 금융부문의 취약성, 중앙은행의 구조조정, 최소 자기 자본 요건을 적용하고 공공 부문 임금 억제하는 등 조심스러운 경제 정책을 공식화 시키는 것에 빠른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 재정정책

12월에 발표된 2014년 예산은 2012년 12월에 발표된 2013년 예산과 같이 겉보기로만 균형이 잡혔다. 사실, 공식 통계에 비추어보더라도, 2013년 7월만 봤을 때에도 7천4백만 달러의 적자를 입었다(적어도 대선 직전으로 지출이 심하게 오르지 않았다). 새 법안은 세금 및 관세 변경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5년부터 백금과 크롬의 수출은 15%의 세금이 부과될 것이다(그리고 백금 회사들은 또다시 2014년 말에 순백금 수출이 금지되었음을 통고 받을 것이다). 반대로, 로열티 세금은 주 소유의 원시 금속을 수출하기 보다 Fidelity Printers와 Refiners에 금을 판매하도록 자극하기 위해 7%에서 3%로 줄어들어 소규모의

금광 회사로 인해 지불되었다.

Rio Tinto's Murowa 다이아몬드를 제외하고, 정부가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업계에서 접수를 빠르게 하려면, 예산은 수익공유 방식을 적용합니다. 모든 다이아몬드 접수의 10%가 미네랄 판매를 처리하고 있는 국영 광물 마케팅 회사에 의해 지급된다. 예산은 또한 한 달에 2만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는 고소득의 근로자가 지불해야 하는 세금의 고정요금을 45%에서 50%로 증가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공공 부문의 급여를 강화하고 짐바브웨의 부진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Mugabe 정부가 제시한 공공 지출을 증가시키는 계획을 투자하기에 충분한 수익을 올릴 것임은 명확하지 않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유지가 가능한지는 의문이지만, 중국과 같은 새로운 주체로부터의 대출 의존도를 증가시키면서 국내 연체를 계속 실행을 추구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2014-15에는 대신으로 인한 정부의 지출 증가로 인해 연간 평균적으로 GDP의 4.5 %의 적자를, 2017년에는 3.8 %, 2018년에 4.1%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한다. 공공 재정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 될 것이다. SMP가 예산에 대한 개선을 할지라도, 예산 외 지출의 범위는 계량화하기가 어렵고, 특히 정부 지출에 관련된 데이터의 진위여부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 통화정책

짐바브웨 달러의 단독 사용에 복귀에 ZANU-PF 내에서 계속 분쟁이 있지만, 적어도 예측기간의(forecast period) 상반기 동안에는 행정부가 현재의 시스템을 고수하고 타 통화를 짐바브웨 달러로만 반환하는 것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짐바브웨 달러의 단독 사용 복귀로 인해 경제적으로 손상을 입을지라도, 정부가 적자를 장기부채로 만들기 위해(to fund deficits) 화폐를 인쇄하는 것과 같은, 이전의 통화정책으로 돌아갈 위험이 있다. 2008년부터 처음 91일 동안의 재정청구서(91-day Treasury bills)를 발행과 함께 진행 된 2012년 말 단기 화폐 시장의 재개는 이미 할당 증가로 인해 지출 부처의 수요를 자극해서 문제 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은행 대출 금리는 인플레이션의 감소로 급격히 떨어졌지만, 유동성과 금융 부문의 지속적인 문제로 경기 침체의 속도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5) 주요인사정리

- 대통령: Robert Mugabe
- 부 대통령 : Emmerson Mnangagwa, Phelekezela Mphoko
- 주요 장관
 - 농기계화부 장관: Joseph Made

- 국방부 장관: Sydney Tigere Sekeramayi
 - 에너지/자원개발부 장관: Walter Chidhakwa
 - 환경/수자원부 장관: Oppah Muchinguri
 - 재무부 장관: Patrick Chinamasa
 - 외교부 장관: Simbarashe Mumbengegwi
 - 보건/아동복지부 장관: David Parirenyatwa
 - 고등교육부 장관 : Jonathan Moyo
 - 내무부 장관: Ignatius Chombo
 - 토착화부 장관: Douglas Mombeshora
 - 산업/상업부 장관: Mike Bimha
 - 정보부 장관: Priscah Mupfumira
 - 정보/통신기술부 장관: Supa Mandiwanzira
 - 법무부 장관: Emmerson Dambudzo Mnangagwa
 - 노동/사회서비스부 장관: Prisca Mupfumira
 - 토지부 장관: Douglas Mombeshora
 - 지역정부 장관 : Saviour Kasukuwere
 - 광업개발부 장관: Walter Chidhakwa
 - 초/중등교육부 장관: Lazarus Dokora
 - 중소기업부 장관: Sithembiso Nyoni
 - 스포츠/예술/문화부 장관: Andrew Langa
 - 관광부 장관 : Walter Mzembi
 - 교통/인프라개발부 장관: Obert Mpfu
 - 에너지/전력부 장관: Samuel Undenge
 - 환경수산부 장관: Oppah Muchinguri
- 중앙은행총재: Charity Dhliwayo

(2015년 12월 확인정보)

3. 한국과의 주요 이슈

가. 외교관계

남한과의 관계	
수교 일자	1994년 11월 18일
공관 현황	한국: 주짐바브웨 대사관 짐바브웨: 일본 대사관에서 겸임
주요 협정	친선협력협정(1980년), 무역협정(1980년), 경제공동위원회 창설에 관한 협의서(1986년), 의료분야 협력 MOU(2006년) 투자보장협정(2010년)
북한과의 관계	
수교 일자	1980년 4월 18일
공관 현황	북한: 1998년 1월 철수 짐바브웨: 중국 대사관에서 겸임
주요 협정	1988년 11월 북한 노동당, 짐바브웨 ZANU 당과 협조 의정서 체결 2009년 무기-우라늄 거래 비밀협정 체결

자료: 외교부

나. 주요 인사 교류

1) 주재국 방문

날짜	내용
1985년 11월	강원대 이호주 부교수 FAO 잠업개발 자문관으로 파견, 1986년 1월까지 하라레에서 근무
1992년 9월	KOTRA 주관 시장 개척단 방문
1994년 4월	김진호 주잠비아대사 짐바브웨 국제 무역박람회 참석
2000년 5월	짐바브웨 종합박람회 한국관 개관, 경인지역 중소기업 8개사 방문
2001년 6월	최호중 외교협회 회장 방문
2001년 11월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박수 박사 등 경제세미나 개최
2007년 11월	이한호 관광진흥공사 사장 방문
2009년 5월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이범래, 김정권 의원 동반) 방문
2009년 7월	이용준 외교부 차관보 방문
2010년 1월	국회대표단(서갑원, 김선동의원) 방문
2010년 11월	박영준 지식경제부 제2차관 방문

날짜	내용
2011년 1월	정준양 POSCO 회장 Mujuru 부통령 면담
2011년 2월	MBC, 공관장 인터뷰
2011년 2월	오재학 대사 Mumbengegwi 외교장관 면담
2011년 2월	오재학 대사Tsvangirai 총리 송별만찬 참석

자료: 주짐바브웨한국대사관

2) 방한

날짜	내용
1980년 9월	Oxley 국제 청년회의소 아주지역 담당 상임 부회장
1984년 4월	Whabira NOC 사무총장 제5차 ANOC 서울총회 참석
1984년 10월	Chidzero 재무장관 IMF 서울총회 참석
1993년 8월	Mundangepfupfu 환경 관광차관 대전엑스포 참가
2001년 4월	N. Moyo 산업무역부 장관, L. Chihota 수출자유공단장 등 방문
2004년 3월	Nhema 환경부 장관, UNEP 세계환경장관 회의 참석
2005년 5월	Nkomo 국회의장, G. Sibanola 야당 원내대표, A. Zvoma 국회 사무총장 등 3인 (제6차 정부혁신 세계포럼)
2006년 5월	G. Gono 중앙은행 총재, 국제교류재단 초청 짐바브웨 투자설명회 개최
2006년 11월	B.D. Muthobi 대사(짐바브웨 국립대학 이사회 의장), 제1차 한-아프리카 포럼 참석
2009년 4월	Chombo 지방정부 장관 및 Nkomo 수자원개발 장관 방한
2009년 8월	Mangoma 경제기획부 장관 방한
2009년 9월	Mudzuri 에너지전력개발부장관 방한
2010년 5월	모간 창기라이 짐바브웨 총리 투자보장협정체결 방한
2010년 8월	짐바브웨 경제 사절단 방한
2010년 9월	Obert Mpofu 광업부 장관 방한
2013년 12월	Patrick Anthony Chinamasa 재무장관 방한

자료: 주짐바브웨한국대사관

(2015년 12월 확인정보)

II. 경제

1. 경제동향 및 전망

가. 경제 동향

짐바브웨는 다양한 광물자원 및 풍부한 관광자원은 물론, 과거 비교적 발달된 제조업 및 대규모의 상업영농 등 우수한 농업기반 등을 보유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남아공 다음으로 산업화의 기반과 국제경쟁력을 잘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짐바브웨 경제는 독립 후 10여 년간 서방국가들의 원조와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원 등에 힘입어 건실한 성장세를 이어 갔으나, 1990년대 최악의 가뭄 사태로 인해 경제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1990년 후반 토지개혁 강행으로 불거진 서방국가들과의 관계 악화로 인해 대외원조 및 자금지원이 중단되었다. 여기에 덧붙여 통제 일변도의 경제정책으로 실물 및 금융경제가 심각하게 왜곡되면서, 1999년 이래 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및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하고 있는 등 독립 이래 최악의 경제난에 직면하고 있다.

2009년 2월 여야 간 합의에 의해 탄생한 통합정부는 '단기 경제회복 프로그램'(Short Term Emergency Recovery Program)을 발표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정책 방향은 헌법 개혁, 언론 자유화 및 미디어 개혁, 법치주의 강화, 사회 안전망 강화, 성장 위주 경제 프로그램, 고용창출 등을 제시하였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행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통합정부는 개혁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스스로 힘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여 자구책을 마련하였다. 공기업 민영화 및 지분 매각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되, 국제사회와 접촉을 통해 금융지원을 확보 조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남아프리카 개발 공동체(SADC)는 이에 대하여 짐바브웨 경제 재건을 위해 83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짐바브웨 주요 경제 지표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명목 GDP(US\$십억)	1.4	1.6	2.0	2.3	2.5	3.0*
실질GDP 성장률(%)	-1.3	6.9	5.9	3.1	2.2	2.8*
1인당 GDP(달러)	469	592	741	806	600	953*
소비자물가상승률(%)	-7.7	3.2	4.9	3.5	8.5	8.5*
환율(Z\$: US\$, 연말)	1.72 X 10 ³⁵	5.00 X 10 ³⁸	3.0 X 10 ²⁷ *			
경상수지(백만 달러)	-1,114	-954	-621	-416.5	-576	-611*
외환보유액(백만 달러)	437	453	453	575.6	437	488*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총 외채잔액(백만 달러)	7,595	8,823	9,624	8,765	8,445	9,361*
수입(백만 달러)	3,139	3,673	4,370	4,569	4,571	4,700*
수출(백만 달러)	1,633	2,130	2,932	3,314	3,144	3,200*

자료: Economist Intelligence Unit, 한국수출입은행, CIA

주1: *는 추정치

주2: 2015년 12월 기준, 입수가능 최신자료

나. 경제전망

1) 경제성장전망

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 의하면, 2016년 짐바브웨의 경제 성장률은 2.4%로 2015년 경제 성장률인 1.4%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수년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짐바브웨의 낮은 생산력, 높은 실업률, 환율약세, 열악한 인프라 등 아직 개선되지 않은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주 원인으로 꼽힌다.

짐바브웨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하는 담배 및 금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지속된 담배가격과 금 가격의 약세는 짐바브웨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말 정부는 짐바브웨의 지속 가능한 사회 경제적 변환에 대한 논제로 5년 경제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짐바브웨의 2018년 경제성장률을 9.9%로 목표를 정했으며 2014년부터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정책은 경제발전을 일으킬 주요한 역할로 일반적인 인프라의 개발과 함께 농업, 정보 통신 기술, 광업 및 운송 부문을 칭한다. 토의된 계획은 특별 경제 구역(Special Economic Zones), 광업 및 농업 등의 분야에서의 부가가치 및 선광, 국부 펀드의 설립, 도로의 재활 및 개발, 발전 및 수자원 분야를 포함한 경제적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 자금을 어떻게 제안할지, 또는 이 계획을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억제하는 토착화 프로그램으로 만들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ZANU-PF가 성공적으로 인프라 부족과 빈약 한 비즈니스 환경을 포함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건설 및 제조 분야에서의 능력은 향상시킬 수 있다.

하지만 잠재적인 외국인 투자를 억제한다면, 성장이 또다시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 최근에는 선거로 인한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2018년 3.3%로 하락하기 전, 2017년 연간 성장률이 3.4%에서 3.9%로 인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예측 기간의 전반부에서 정책 결정 환경에 따라 큰 오차범위가 있을 것이다.

경제성장률

%	2013	2014a	2015a	2016a	2017a	2018a
GDP	2.2	3.2	3.4	3.5	3.9	3.3
민간 소비	2.9	3.5	3.7	3.9	4.2	4.0
정부 소비	5.8	6.5	6.0	5.9	6.2	6.5
총 고정 투자	3.7	3.8	4.1	4.4	4.2	4.0
수 출	2.9	3.2	3.5	3.7	3.9	3.7
수 입	4.9	4.7	4.8	5.0	5.0	5.5
내 수	3.6	4.2	4.3	4.4	4.7	4.6
농 업	1.3	2.7	2.9	2.5	2.7	2.0
산 업	3.7	4.7	4.9	5.2	5.5	4.8
서비스업	1.5	2.4	2.7	2.9	3.3	2.9

주: a 경제성장률 전망

2) 물가상승전망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인구, 세계적인 도시화와 바이오 연료 생산의 증가 효과로 인해 식료품의 재고량이 적어져 식품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또한, 국내 노동자들이 지출 능력의 장기적인 침식을 해결하기 위해 임금 상승을 요구하여 물가상승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식적인 물가상승 정보에 따르면 작년 대비 2012년 7월 3.97%에서 3.94%로 미세하게 감소하였으나 이 자료는 빠른 임금상승률 등 여러 지표를 배제하고 측정된 값이다. 당국은 선거철을 맞아 지출을 늘리고 임금재정을 계획함으로써 2013년 물가상승률은 8.7%로 상승할 것으로 보았다.

2014-16년 국제 식품 가격은 연평균 3.2%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예측 기간의 마지막 2년동안 연평균 2.2% 인상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구의 지속적인 성장과 개발 도상국의 도시화(보다 적은 경작지), 바이오 연료 생산 작물의 사용으로 물가가 유지되어, 물가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근로자들(특히, 공공 부문)의 장기적으로 침식되어 있는 소비력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국내 임금 요구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당국이 선거기간 동안 지출과 임금 상을 상승시킨다면, 인플레이션이 2013년에 예상된 8.6%보다 낮아 질 것으로 예측되나, 인플레이션은 2017-18년 대선 전 정부가 지출을 높여 연평균 5.9%로 증진되기 전에, 2016년 5.2%로 천천히 하락할 것이다. 물가상승의 실제 속도는 공식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역사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인플레이션은 ZANU-PF 정부가 적자를 메우기 위해 화폐를 인쇄한 것처럼 비참한 정책으로 돌아오지 않으려면 그대로 남아있어야 한다.

3) 환율전망

ZANU-PF의 당원 Mr. Mnangagwa는 선거에서 ZANU-PF 당이 승리할 경우 다시 천문학적인 물가상승을 초래한 짐바브웨 달러의 사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DC는 비교적 순차적인 방법으로 짐바브웨 달러사용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남아공을 포함한 주변국가들과 효율적으로 거래함에 있어 미국달러 사용이 불편함을 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Mugabe는 미국 달러의 사용이 가난한 농촌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주장으로 여러 번 짐바브웨 달러 사용으로 돌아갈 것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재무부 장관 Patrick Chinamasa는 복수 통화 체제가 당분간 유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고, 타 장관도 짐바브웨 달러가 다중 화폐 시스템에 속하여 운영이 되어 보완을 하는 것이지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짐바브웨 달러로 미국 달러와 함께 효과적으로 작동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 남아있지만, 무역의 대부분을 미국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 남부 아프리카 국가와 함께하기 때문에, 다중 통화 시스템의 폭이 넓어 사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국가의 치명적인 인플레이션에 기여했었던 짐바브웨 달러 단일화는 굉장히 부정적인 신호일 것이다.

2. 주요산업동향

가. 농업

1) 농업 동향

짐바브웨는 국토 면적 39만 평방km 중 50%를 경작 가능한 농지로 보유하고 있으며 북동부 고지는 농경지, 남서부 저지대는 목초지로 적합한 지역이다. 다른 아프리카 국가와는 달리 농업의 GDP 비중이 20%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70%가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외환소득의 1/3, 공식 고용부문의 23%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분야 중 하나이다.

짐바브웨는 식량을 자급자족해 왔으며 옥류, 옥수수와 환금 작물인 엽연초, 면화 및 설탕을 수출함으로써 아프리카의 “Bread Basket”으로 불려 왔다. 그러나 1992년과 1995년에 연달아 찾아온 최악의 기근과 2001년 홍수 발생, 2002년부터는 한발로 극심한 식량부족에 시달리기도 하였다.

2010년 5월 우리나라를 방문한 창기라이 짐바브웨 총리가 우리나라의 농촌진흥청을 방문하고, 발전된 농업기술을 인지하여 한국과의 농업협력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POSCO와 기아대책부, 한국국제협력단의 공동 지원 하에 2012년 8월 짐바브웨 하라레에서 남쪽으로 35km 떨어진 세케군에 짐바브웨 농업훈련원이 설립되었다.

짐바브웨 설탕 생산량이 사탕수수 생산량과 효과적인 설탕공장의 운영으로 인해 2012/13년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를 기록했다. 그것은 최근 몇 년 동안 공장 보수 공사를 통한 재투자가 크게 작용하여 낳은 결과이다. 하지만 2013/14년에는 관개수준의 감소와 건조한 기후로 인해 사탕수수의 재배량이 감소함에 따라, 생산량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13년 완공될 것으로 예상됐던 댐의 공사가 완공된다면 관개수준이 상승하여 생산량이 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짐바브웨의 설탕 산업이 어느 정도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다.

또한 2013/14년 짐바브웨 옥수수 생산량이 재배지역의 감소와 재배기간 중 변덕스러운 기후로 인해 800,000톤으로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012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남서지역의 강우량 부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며, 최근 5만 명이 넘는 소규모 농장 운영자들이 경작 품목을 옥수수나 콩 등에서 담배로 바꾸고 있는 추세이다.

담배는 더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데다, 곡물시장의 상승적인 대금 연체에 불만을 가져온 농민들 입장에서 즉시 대금이 지불되는 담배시장이 훨씬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환을 벌기에 적합한 담배시장의 특성과, 2014년 2월에 짐바브웨 정부가 법정 통화인 엔화와 중국 위안화, 인도 루피화 그리고 호주 달러화까지 추가한 점도 담배 재배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로써, 2011/12년 기록된 1.4백만 톤의 생산 이후, 짐바브웨 옥수수 생산이 2년 연속 감소가 예상되며, 특히, 2012-2013년도 옥수수 수확량은 79만6천 톤으로 국내 수요인 120만 톤의 56%를 생산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짐바브웨 내 곡물 수확량이 갑자기 줄면서 식량 공급부족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으며, 남아공과 잠비아와 같은 이웃 국가로부터 추가적으로 15만 톤의 옥수수를 수입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따라 UN세계식량계획이 국제기구들과 협력해 식량 보조에 나서고 있지만, 1,300만 짐바브웨 국민들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외교부, OBS뉴스

2) 주요 농산물

주요 농산물은 옥수수, 엽연초, 면화를 주 종품으로 하고 있으며 소맥, 대두, 낙화생, 유종자, 커피, 차, 과일, 각종 야채 등으로 광범위하다. 그 외에 축산 및 낙농도 활발하고 소고기는 우수한 육질을 바탕으로 유럽 지역에 수출하고 있다.

담배, 면화, 설탕, 커피, 밀, 콩 등 환금작물은 과거 주로 자본 집약적인 백인 상업농장에 의해 재배되어 왔으며 옥수수 등의 식량 작물은 소규모 흑인 자영농민에 의해 생산되어 왔다.

그러나 백인 농장 환수 및 재분배 정책 이후로 대규모 상업 영농체제가 붕괴되어 전반적인 농업 생산의 침체를 가져왔다.

짐바브웨는 브라질 및 미국과 더불어 세계 3대 담배 수출국이다. 1964년과 1965년에는 담배가 농산물 총생산의 75%를 차지하였으며 매년 국내 총 수출액의 20~3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은 작물이지만,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생산이 감소되어 오는 추세였다. 2006년 들어서 생산량이 일부 호전되고 있다.

최근 화훼, 채소 등 원예작물이 급속 신장되어, EU 및 남아공 등에 수출하고 있으며 담배 및 면화와 더불어 짐바브웨의 주요 수출작물이다.

축산업의 경우에도 한때 600만 두 이상의 육우를 보유할 만큼 발달되었으나 백인 농장 환수로 170만 두로 추산되던 상업 농장의 육우가 2004년 20만 두로 크게 감소되고, 흑인들에 의한 목축업도 최근의 극심한 한발로 크게 위축되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의 광우병 발생으로 EU에 대한 연 2만여 톤의 소고기 수출이 중단되면서 타격을 받았다.

주요 작물과 축산물 5대 품목(커피, 면화, 낙농, 쇠고기, 돼지고기)은 Marketing Board를 통해 판매되며, 담배는 경매(Tobacco Marketing Board에 의해 통제)로 판매된다.

나. 광업

1) 개황

짐바브웨 중앙부의 북동에서 남서 방향에 걸쳐 형성되어 있는 지층인 대암맥(Great Dyke) 지역에 중요 광물자원이 지중되어 있으며 Hwange 탄전이 양질의 석탄을 생산하고 있다. 짐바브웨는 200여 종의 다양한 광물 종류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업적 가치가 있는 것만 해도 약 30여 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금(총 광업 생산의 1/2 차지), 백금(남아공에 이어 매장량 세계 2위), 크롬(세계 3위), 석면, 리튬(세계 7위), 니켈(세계 16위), 석탄 등이 주요 광물이다. 금, 은을 제외한 광물은 짐바브웨광물거래조합을 통해 판매되며 판매액의 0.875%가 수수료로 부과된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 광업 부문이 경제 부양의 큰 원동력이었으나, 1980년대 초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격감으로 광업에 큰 타격을 주어 많은 광산이 폐광된 바 있다. 최근 경제난 지속에 따른 생산원가 급등 등이 광업 채산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은 독재자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과 서방국가의 토지개혁 등 불편한 관계 때문에 쉽게 짐바브웨 광산업에 진출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최근 짐바브웨 여야 통합정부가 구성되어 정치, 경제 상황이 안정되었고, 유럽의 대짐바브웨 경제 제재가 완화되며 전 세계에서 기업들이 짐바브웨로 몰려들고 있다. 영국계 거대 광산회사인 앵글로아메리칸은 5억달러를 백금 채광에 투자하였다. 임플라츠(남아공), 리오 틴토(영국, 호주), 터너 앤 뉴얼(호주) 등도 진출했다. 또한 중국 철강회사 시노스틸은 2007년 12월 짐바브웨의 최대 크롬생산업체 지마스코를 사들였다. 중국계 자원 투자개발회사인 차이나 소낭골은 2009년 11월에 짐바브웨 정부와 80억달러 규모의 투자협정을 체결하였다. 그 중 상당액은 금과 백금 개발에 투입되었다.

아프리카 자원경쟁에 끼어들기 위해 한국 포스코 정준양 회장은 2010년 6월 짐바브웨를 방문하여 무가베 대통령을 만났다. 또한 2010년 10월 말에는 박영준 지식경제부 제2차관이 대표단과 함께 짐바브웨를 방문하였다.

2) 금

광업생산의 1/2를 차지하는 금은 독립 후 1990년대 후반까지 거의 매년 생산이 신장되어 왔으며 1999년에는 28톤을 생산하여 1980년의 두 배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1997년 이래 금값의 하락 및 경기 침체 등에 기인하여, 2000년 2억 9천만 달러의 수출을 기록한 후 금 생산이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에는 2억 3천만 달러에 그쳤으나 2006년 들어 국제 금 가격 상승 등이 금 생산 및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최근 2011년 짐바브웨의 금 생산량은 목표량보다 약 1100kg 적은 12,824kg이고 6억 5천불의 이익을 가져왔다. 금 및 백금 수출은 중앙은행이 관장하고 있으며 생산량의 90%를 수출하고 있다.

3) 백금

남아공에 이어 세계 2위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백금은 최근 국제 시세의 상승에 힘입어 광산 개발이 비교적 활기를 띠고 있다. 경제난 지속에도 불구하고 외국 투자자들의 관심이 되고 있는 주요 분야 중 하나이다. 짐바브웨 최대 백금 생산 업체인 Zimplats (남아공 Implats의 짐바브웨 투자 회사) 및 Mimosa Platinum 사는 짐바브웨 내 광업부문에 지난 10년간 총 9억 5000만 달러를 백금광산에 투자하여 2012년에 20,000온스에서 187,000온스까지 백금생산을 확대하였다.

2013년, 짐바브웨의 백금 생산은 2012년 0.39백만 온스에서 10.8% 증가된 0.43백만 온스로 증가했다. 정련소에 수익을 내기 위해 채광된 생산품을 증가 시키므로 인해 더욱 인상적인 연간 생산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4) 석면과 크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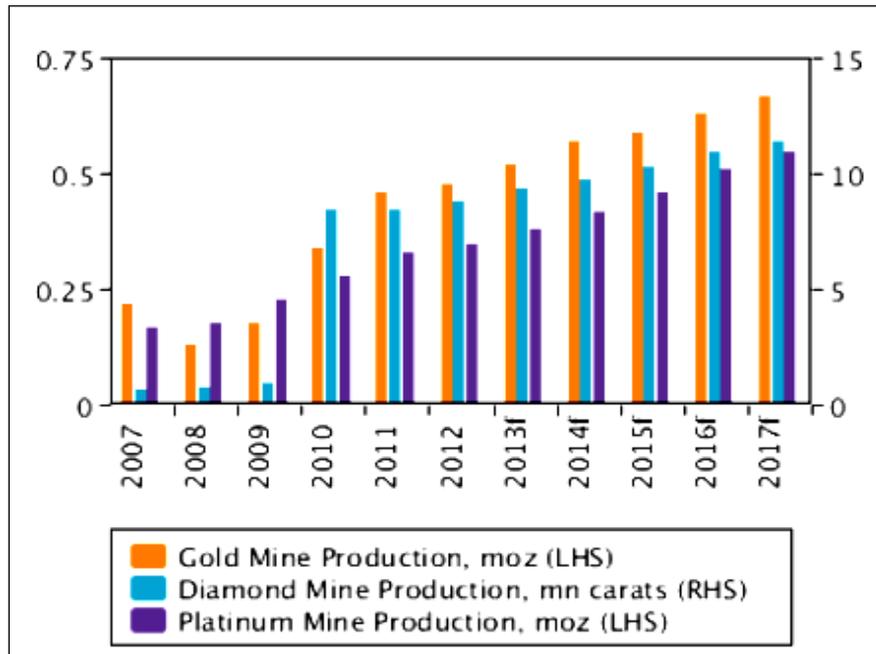
짐바브웨는 석면을 1976년 250,000톤 생산하였고 현재 캐나다,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의 석면 생산국이다. 짐바브웨의 석면 매장량은 수세기 공급량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과 북미의 특정 시장에서 석면사용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짐바브웨의 석면 생산 및 수출량이 급격히 줄었다. 그러나 짐바브웨는 아시아 시장에 발판을 두어 2009년 5,000톤을 생산하였다.

짐바브웨에는 2012년, 4,000개의 크롬광산이 등록되어있고 이중 46%는 짐바브웨 토착인이 소유하고 있다. 주요 광산회사로는 ZIMASCO, Zimbabwe Alloys, Maranatha가 있다. 짐바브웨의 크롬 생산량은 매년 50만톤이다.

짐바브웨 주요 광업 회사

주요 생산 광물	회사명
금	Ashanti Gold Fields(가나) Fakcon(짐바브웨)
백금	Zimplats(Zimbabwe Platinum Mines, 남아공) Mimosa(짐바브웨)
니켈	Rio Tinto Zimbabwe(영국, 호주)
크롬	Anglo American cooperation(남아공)
석면	Tuner&Newall(호주)

짐바브웨 - 금, 다이아몬드, 백금 생산량



다. 제조업

짐바브웨는 사하라 이남에서 남아공 다음으로 다양하고 발전된 제조업을 갖고 있으며 1970년 이후 GDP의 25%를 차지하였으나 경제개방과 함께 1990년대 후반에는 15%대로 하락하였다. 특히 짐바브웨 제조업은 농업 및 광업 등 주요 산업분야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 이들 분야의 경기여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짐바브웨에 있어서 제조업 발전의 기반은 제2차 대전 후 Rhodesia-Nyasaland 연방기에 이루어 졌으며, 특히 1965년 Ian Smith 수상이 영국으로부터 일방적 독립선언을 한 이후 국제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수입 대체산업 육성 차원에서 제조업이 발달하였다.

제조업은 주로 Harare(50%) 및 Bulawayo(25%)에 집중되어 있다. Kwekwe는 제철 및 철강산업의 중심이며, Kadoma, Gweru는 각기 설치공업, 제화공업으로 유명하다. 또한 Mutare는 모잠비크의 Beira항과 짐바브웨를 연결하는 소위 Beira 회랑의 짐바브웨 거점 도시이고, Beira와의 석유 파이프 라인, 철도, 수송 컨테이너 수송기지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Mutare에는 목재, 펄프 공장, 자동차 조립 공장도 있다.

짐바브웨의 제조업은 시멘트, 건축자재, 화학제품, 비료, 가구, 의료기, 고무제품(타이어 등)에 있어서도 아프리카 개도국으로서는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버스, 트럭, 트랙터, 승용차 등을 조립 생산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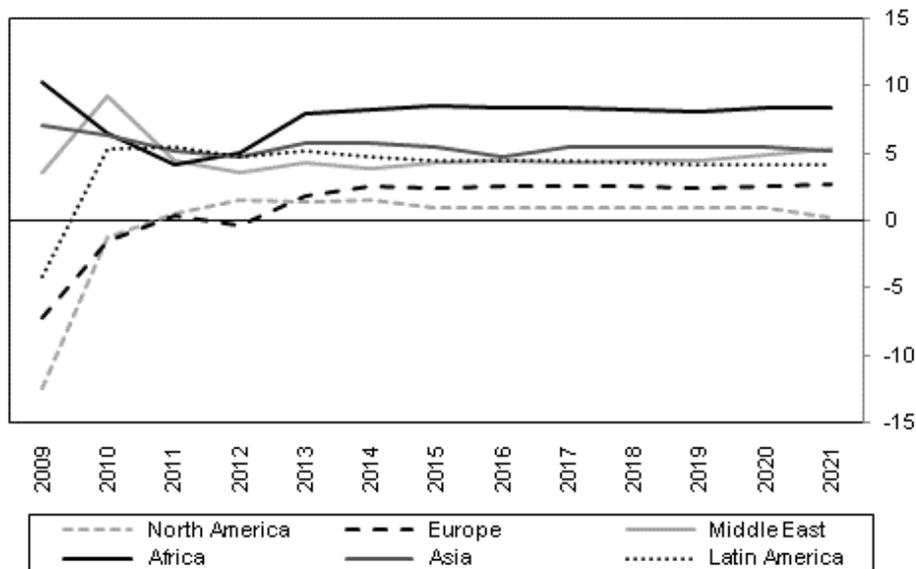
짐바브웨는 1999년 이후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해 오고 있으나, 2000년 이후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특히 제조업분야에 큰 타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난, 인플레이션, 흑인들에 의한 외국기업 공격 등 사회불안 요인까지 겹쳐 외국인 기업환경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민영화 추진이 부진한 실정이다.

라. 건설업

건설업은 1970년대 건설 붐 이후 1980년대 이후로는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1975년에는 GDP의 5%를 차지하였으나 1999년에는 2.8%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건설업 노동자수도 1998년 8만 명(고용인구의 4.5%)에서 2004년에는 3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건설업 침체의 원인은 1980년대 Aid-Tied Projects 사업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짐바브웨 건설업자들을 외국 건설회사의 하청업자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시멘트 제조회사로는 Circle Cement와 Portland Holdings가 있으며, 생산능력은 매년 70만 톤이다.

중국의 난장은 짐바브웨 Mashonaland 중부 지방 Ruya 강과 Darwin 산 지역 접경에 위치한 Semwa 댐 건설을 시작했다. Semwa 댐은 두 지역과 Rushinga 비즈니스 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게 에 관개할 충분한 12,000헥타르의 물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댐의 건설은 3년 안에 완공될 것으로 예정되었다. 짐바브웨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2013년 국가예산 중 2백만 달러를 할당해두었다.

지역별 건설산업 실제 성장률(% 전년 동기 대비)



마. 금융업

짐바브웨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남아공 다음으로 잘 발달된 금융 체제를 갖고 있었으나 짐바브웨 달러 가치 몰락 및 최악의 경제난으로 금융 부문도 큰 타격을 받으며 금융기관 자산이 대폭 감소하였다. 금융기관 자산은 2005년 약 12억 달러였으나 2007년 12월 3천만 달러 수준으로 75%로 감소하였다.

Reserve Bank of Zimbabwe(RBZ)가 중앙은행이며, 주요 상업은행으로는 Barclays Bank of Zimbabwe, The Commercial Bank of Zimbabwe, Standard Bank of South Africa (Stanbic), Standard Chartered Bank, Zimbank(국가가 61% 주식보유)가 있다.

현재 중앙은행 규제 하에 개 상업 은행, 4 개의 종합 금융사(Merchant banks), 4개의 건축조합(Building Societies) 등 총 28개 금융기관(자산관리 회사 제외)이 있다.

- 짐바브웨 증권 거래소: Zimbabwe Stock Exchange(ZSE)-101개 상장기업 주식거래

1994년 개장한 이래, 1997년부터 10여년간 하이퍼인플레이션 및 경제난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었지만, 2009년 미달러화를 공용 화폐로 채택한 이후 상황이 호전되어 가고 있다. 주식거래소 상장 요건 등은 舊영국 시스템을 그대로 물려받아 여전히 실적 보고 및 회계 감사 등 절차가 시대에 크게 뒤떨어져 있으며, 주식 거래도 디지털화되지 않아 문서를 통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등 개선의 여지가 많다. 미달러화의 사용으로 인해 환율 변동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점은 짐바브웨 주식시장 활성화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짐바브웨 일일 주식거래 규모는 약 1백만 달러 수준으로 매우 미약한 수준이며, 그나마도 외국 투자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들어 중국 투자자들이 짐바브웨 주식시장에 진출하는 추세가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부분 개인 투자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바. 관광업

현재의 경제난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가장 급성장하던 분야로서 정치, 경제적 안정을 구가하던 1990년대에는 관광산업이 크게 번창하였고(당시 총 GDP의 4%, 정규 고용의 6%, 외환 확보의 10%를 관광산업이 담당), 1999년 270만 명의 방문으로 절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전체 관광산업의 87%를 차지했던 국내 관광객이 감소하고, 2000년 급격한 토지개혁 정책으로 인해 서방국가들과 마찰을 빚으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2000년에는 1999년 대비 75%감소)하여 이후 관광산업의 침체가 계속 되고 있다. 2004년 호텔 투숙률이 겨우 30%를 기록한 데 이어, 2005년 관광산업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49%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짐바브웨는 다수의 수준급 호텔이 각지에 산재해 있고, 생태 관광, 사파리 등 관광자원 잠재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향후 경제상황 및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가 호전되는 경우

관광산업의 빠른 회복이 기대된다. 2009년에는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관광산업 침체에도 불구하고 주재국 관광산업은 오히려 6.5% 성장을 기록하였고 미국, 독일, 스웨덴 등 주재국에 대한 여행제한을 해제하며 관광산업의 회복세를 시현중이다.

UNWTO (세계관광기구)도 2010년중 아프리카 방문 관광객이 3~4% 이상 성장 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특히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관광객 증가가 가장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주재국 관광부는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교통망, 숙박시설, 통신 등 관광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는 전제하에, 재정부에 2800만 미불의 특별 예산배정을 요청하였다. 주재국 민간항공청(CAAZ)은 국영 짐바브웨항공사(Air Zimbabwe) 외에 추가적으로 주재국 민간항공사의 영업을 허가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아울러 여타 지역 항공사 및 국제항공사와도 접촉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주재국은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해외직접투자(FDI) 유치도 긴요하다고 보아 2010년 2월, 수도 하라레에서 ‘범아프리카관광투자정상회의 (Pan-African Tourism Investment Summit)’를 개최하였고, 동 회의에는 Robert Mugabe 대통령 외에도 잠비아, 가나, 나미비아 등 아프리카 국가 관광부 장관 및 민간투자, 금융기관, 여러 기업들이 참석하였다.

짐바브웨는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이러한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및 (UNWTO)등 지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을 갖고 있으며, 특히 현재 UNWTO 집행이사국인 주재국의 이점을 십분 활용하려는 계획이 있다.

빅토리아 폭포 지역에 병원과 공항을 추가로 운영하려는 계획은 빅토리아 폭포 리조트 도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프로젝트의 확장은 2013년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총회로 도시를 현대화 시키려는 목표에서 진행되었다. Bulawayo 기반의 회사는 새로운 병실과 접수실, 행정실, 첨단기술의 장비 등 병원 확장을 위해 tenders를 수여 받았다. 짐바브웨 정부는 병원을 확장하기 위해 6백만 달러를 투자할 것이고, 회사들은 그 위치에 장비를 설치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다.

짐바브웨 정부는 전력 및 수력 인프라 재활 시설의 두 번째 단계를 시작했다. 시설은 전력공급의 신뢰성과 유효성을 개선시키려는 것이 목표이다. 수력 공급과 위생 프로젝트가 19백만달러 이상을 할당 받은 데 비해, 공급과 두 번째 단계의 전력 프로젝트는 15백만달러 이상의 가치의 공채가 할당되었다. 프로젝트의 재활금융은 짐바브웨 다자 신탁 기금을 통해 정리되었다. 비상 전력 인프라 재활 프로젝트는 Gweru, Kwekwe, Bulawayo, Masvingo, Mutare, Hwange과 Harare의 총 인구를 5백만명으로 하겠다는 것을 두 단계의 목표로 삼고 있다. 긴급 물 공급 및 위생 재활 프로젝트는 총 인구목표가 1.9백만명인 Chitungwiza, Harare, Ruwa와 Redcliff 네 개의 지방 자치 단체에서 물과 폐수 처리 능력 복원을 지향한다.

2013년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총회가 짐바브웨 빅토리아 폴스(Victoria Falls)호텔에서 개막했다. 제20차 UNWTO 총회가 8월 24일부터 29일(5일 간)까지 짐바브웨와 잠비아

2개국에서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번 총회에서는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DGS)로서의 '지속가능한 관광'과 고용창출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특히, 이번 본회의 안건은 UNTWO ST-EP재단의 독립적인 국제기구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자리에서 잠비아 사타 대통령은 앞으로 잠비아와 짐바브웨 두 정부가 협조를 통해 관광산업을 부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공동주최국 짐바브웨 무가베 대통령은 "8년만에 UNWTO 총회가 아프리카에서 개최된 것에 대해 의미가 깊다는 말과 함께 잠비아,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관광을 좀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자료: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가. SADC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짐바브웨는 남아프리카 개발 공동체(SADC)의 14개 회원국 중 하나이며, 남아프리카 지역 경제의 협력과 통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또한 중동과 남아프리카 특혜무역지대에 소속된 22개국 중 하나로서 역내 회원국끼리 관세 할인과 원산지 규정 완화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SADC 회원국의 인구는 약 2억 3천명, GDP 합계는 7373억달러에 달한다.

나. COMESA (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은 동남 아프리카 지역의 안보, 질서, 평화를 실현하고 회원국간 상호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1983년 이후 무역특혜협정(PTA)을 확대시켜 경제를 통합하자는 취지에서 94년 설립되었다.

현재 회원국은 앙골라, 부룬디, 코모로, 지부티, 이집트, 이디오피아, 케냐, 말라위, 짐바브웨, 모리셔스, 모잠비크, 잠비아, 나미비아, 루안다, 우간다, 수단, 탄자니아, 스와질랜드, 콩고민주공화국, 마다가스카르, 에리트리아 등 총 21개국에 이르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COMESA 회원국의 인구는 약 4억명, GDP 합계는 3,600억달러에 달한다.

다. 양자무역협정

짐바브웨와 양자무역협정을 맺은 국가는 보츠와나(1992년), 나미비아(1995년), 남아공(1996년), 모잠비크(2005년), 말라위(1995) 이다.

참가국들은 양자무역협정을 통해 국가간 거래 시 관세 및 기타 비 관세 장벽이 제거되며 짐바브웨와 기타 협력국 간의 무역이 촉진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협정은 짐바브웨 구매자들로 하여금 계약의 조건 (모든 국내 재배 상품 및 완성품의 경우, 수입 부품 사용시 완성품의 25%이상은 국내부품일 경우)에 합당한 물품을 수입을 할 경우 관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

라. 양자 투자보장협정(Bilateral 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greements) 체결

오스트리아, 보추아나, 중국,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이집트, 프랑스, 독일, 가나,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탈리아, 자메이카, 말라위, 말레이시아, 모잠비크, 세르비아, 싱가포르, 남아공, 스웨덴, 스위스, 탄자니아, 태국, 우간다, 영국 등 30개국과 체결

마. 이중과세방지협정(Double Taxatation Agreements) 체결

불가리아, 캐나다, 프랑스, 독일,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세르비아, 남아공, 스웨덴, 스위스, 영국 등 14개국과 체결

바. 국제기구가입 현황

ACP, AfDB, AU, COMESA, FAO, G-15, G-77, IAEA, IBRD, ICAO, ICRM, IDA, IFAD, IFC, IFRC, ILO, IMF, IMO, Interpol, IOC, IOM, IPU, ISO, ITSO, ITU, ITUC, MIGA, NAM, OPCW, PCA, SADC, UN, UNAMID, UNCTAD, UNESCO, UNIDO, UNISFA, UNMIL, UNMISS, UNOCI, UNWTO, UPU, WCO, WFTU, WHO, WIPO, WMO, WTO 등 많은 국제기구에 가입하였다.

사. Tripartite Free Trade Area (T-FTA)

아프리카의 세 지역 경제 공동체는 동부와 남부 아프리카에 있는 26 개의 국가를 포함하는 확대 된 시장을 구축하는 2014 년 계약에 서명 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정 자유 무역 지역 (FTA)의 총 600 만 명의 인구와 약 미국 1조달러의 국내 총생산 (GDP)은 아프리카 연합의 회원국의 절반 정도의 규모이고 역내 무역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투자를 증가하고 교차 지역 인프라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 ESA (East and Southern Afric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with the European Union

동부 및 남부 아프리카 (ESA)는 인도양의 섬 (코모로,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와 세이셸)과 아프리카의 뿔 (지부티,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수단)와 남부 아프리카 (말라위의 일부 국가의 국가, 잠비아와 짐바브웨)를 포함한 다양한 EPA 그룹이다.

2007 년 말, ESA 지역에 있는 6 개 주 (코모로,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잠비아 및 짐바브웨)는 유럽 연합 (EU)과의 EPA 중간 결론을 내렸다. 계약은 모리셔스에서 2009 년 8 월에 네 개의 국가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과 짐바브웨)에 의해 서명되었으며, 임시 2012년 5월 14일부터 적용되었다. 2013 년 1 월, 유럽 의회는 계약에 대한 동의를 했다. 이 거래는 전체 EPA 향한 디딤돌이다.

자료: Tradelawcenter(Tralac), UNCTAD

Ⅲ. 무역

1. 수출입동향

짐바브웨의 교역규모는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최고치인 79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5년 짐바브웨의 교역량은 90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79억 6천만 달러보다 소폭 상승하였지만, 무역 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증가한 37억 달러를 기록했다.

짐바브웨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남아공(40.24%), 네덜란드(11.01%), 보츠와나(8.72%), 말라위(4.16%)이다.

주요 수입 대상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68.11%), 보츠와나(9.32%), 중국(4.17%), 미국(3.67%)이다.

합금 철, 백금, 금, 담배는 지속적으로 수출 실적을 지배할 것이고, 미국의 제재와 전환된 수익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이아몬드는 수출 수익의 점점 더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다. 담배 농사가 예측 기간 동안 성과를 올리리라 예상하고 있지만, 그 분야는 점점 질이 훨씬 낮은 소작농 생산으로부터 위압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적 담배 물가는 예측 기간 동안 하락세를 탈 것으로 예측되고, 2013년 평균보다 2018년엔 16.5%까지 내려갈 것이다.

광업 부문의 증대는 전력 공급과 정부의 국제 투자로의 접근을 증폭시키려는 노력을 성공시켜, 국제적 광물 가격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광업 부문 연산자는 자신의 몫에 대부분을 뺏으려는 ZANU-PF의 토착화 프로그램의 부분으로 인해 억압을 당하고 있고, 2015년 1월부터 백금과 크롬의 수출에는 세금의 15%가 부과될 것이다(또한, 백금 회사는 백금 비금속 정유소를 건설하는 것을 시작해야 하는 2014년 말부터 순백금을 수출하는 것이 금지 될 것으로 주의를 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금과 니켈의 가치는 백금의 물가 상승으로 인해(2018년에 2013년에 비해 21% 오를 것으로 예상) 예측 기간 동안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 인해 2013년 31억 달러의 수출이 2018년에는 38억 달러까지 전반적인 수출 상승을 초래할 것이다. 정치 발전에 의해 손상 될 수 있는 광업 부문 활약과 인도적 지원의 증가는, 산업의 투자 상품보다는 소비자의 수입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수입을 증대시키는 것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교역 적자가 2013년 14억 달러에서 2018년 18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부문은 관광업이 천천히 복구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4-18년 동안은 적자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아시아와 같은 비유럽 지역의 관광객 유치를 원하지만 예측 기간 초기에는 인프라 부족과 정세불안, 부정부패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로 인해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입 계정은 적자로 남을 것이나, 3백 5만명 이상의 짐바브웨 해외 거주자의 지속적인 송금으로 경상 이전 계정만은 흑자인 상태이다.

경상 수지 적자는 37.5 %로, 수출 이익은 상대적으로 변함이 없었으나, 정부의 공공 프로그램 계획이 수입을 흡수하면서 2014년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만약 새로운 정부가 외국 원조를 증가시키고, 비즈니스 친화적인 정책을 채택하며, 해외투자를 촉진하게 할 IMF의 조언을 따른다면 적자는 더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 하지만 수출 가격의 하락, 성급한 토착화의 부정적인 영향, 수입 식품과 연료 값의 빠른 상승 폭은 정치적인 불확실성보다 더 큰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짐바브웨 동향

(단위: US\$ 백만)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출	1,633	2,130	2,932	3,314	3,144	3,211	2680
수입	-2,816	-3,689	-4,272	-4,569	-4,571	4,755	6387
교역량	4,449	5,819	7,204	7,783	7,715	7,966	9067
무역 수지	-1,183	-1,559	-1,340	-1,255	-1,427	-1,544	-3707

자료: EIU, World Trade Atlas

주1: 2015년 12월 기준, 입수가능 최신자료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가. 교역동향

한국과 짐바브웨의 교역액은 2000년대 들어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6478만 5천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08년과 2009년 연이어 감소세를 보였다. 2010년 들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338만 9천 달러를 기록하였고 2012년에도 비슷한 교역액을 유지하고 있다. 무역수지는 항상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07년과 2008년에 짐바브웨로부터 니켈 수입량이 급증하여 3579만 7천 달러와 2893만 천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뒤 2009년부터 다시 흑자로 돌아섰다. 2014년의 무역수지는 22,63만 달러로 역시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최근 급감한 수입량이 주 원인으로 해석된다.

한-짐바브웨 교역 동향

(단위: US\$ 천)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출	13,788	20,750	28,336	28,552	63,356	27,368	21,219
수입	4,839	2,639	7,244	1,548	13,226	4,731	6,583
교역액	18,627	23,389	35,580	30,100	76,582	32,099	27,802
무역수지	8,949	18,111	21,092	24,609	12,673	22,637	14,636

자료: 국세청

주: 2015년 12월 기준, 입수가능 최신자료

나. 한국 대 짐바브웨 수출입 동향

한국은 짐바브웨에 플라스틱, 무기화학품, 기계류, 자동차, 화학공업생산물, 전기기기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수입하는 품목은 주로 담배, 철강, 니켈, 암석광물 등이다. 2015년의 對 짐바브웨 수출은 전년대비 20% 감소한 반면, 수입은 34% 증가하였다.

2015년 한국의 대짐바브웨 품목별 수출입 내역

(단위: US\$ 백만, %)

순위	수출			수입		
	품목	금액	증가율	품목	금액	증가율
1	무기화학품	4.76	7.6%	담배	3.23	17.3%
2	플라스틱	4.66	-38.5%	철강	2.51	100%
3	자동차	2.64	0.42%	원피	0.41	427%
4	기계류	1.97	-35.7%	암석광물	0.29	-7.53%
5	인조필라멘트	1.71	35.9%	돌,시멘트 제품	0.05	287%

6	화학품	1.04	-47.8%	예술품	0.03	2568%
7	인조스테인플섬유	0.66	-52%	커피	0.01	18.9%
8	광학,의료기기	0.52	19.6%	수목	0.01	151%
9	종이	0.51	14.7%	산 동물	0.01	0%
10	전기기기	0.50	-25%	목재	0.01	-86%
	총 계	18.98	-120%	총 계	4,731	3477%

3. 수입규제제도

가. 수입 제한 품목

짐바브웨 재무부는 2007년 4월부터 시행해온 사치품에 대한 수입관세 외환징수 제도와 관련, 동 수입관세 외환징수 대상 품목을 자동차, 담배 및 핸드백 등(약 110여개)에서 대폭 확대하는 관세법 시행세칙 개정안(Customs and Excise Act (Designation of Luxury Items) Notice 2007 (Number 1))을 9월 14일 공고하였다.

자료: 짐바브웨공화국 대사관 2007년 9월 17일

- 개정안 발효일자: 2007.9.7부터 소급 적용
- 수입관세 외환징수 대상 품목(추가분): HS 8단위 기준 270여개 품목
 - 성인·아동 남녀 의류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바닥 커버재료(카펫 등 섬유재질), 양말류, 장갑류, 침구류, 화장실/테이블/부엌용 린넨류, 신발류, 냉장고 및 오븐류, 소형 라디오, TV 수신장치를 포함하지 않은 컬러 모니터 등
- 관세율: 종가세(40-60%) 및 종량세 동시 부과
 - 바닥 커버재료: 40% (종가세만 부과)
 - 의류, 양말류, 장갑류, 침구류: 60% + Kg당 10미 달러(단, 중고의류는 Kg당 20미 달러의 종량세만 부과)
 - 린넨류: 50% + Kg당 10미 달러
 - 신발류: 60% + 켈레당 5미 달러
 - 냉장고 및 오븐류: 60% + 개당 45미 달러
 - 소형 라디오 및 컬러 모니터: 60% + 개당 50미 달러

이와 관련하여, 짐바브웨 Samuel Mumbengegwi 재무장관은 지난 2007년 9월 7일 2007년도 추경예산안 발표에서, 2007년 4월-6월간 실시한 수입관세 외환징수 제도를 통해 약 3개월간 960만 달러 규모의 외환을 징수하였으며, 짐바브웨 내 Mazda 자동차 공장 등의 유치를 통해 국내 자동차 생산 및 판매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처럼 짐바브웨 정부는 동 제도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입관세 외환징수 대상 품목이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가 짐바브웨에서 제기되고 있다.

자료: 외교부, 2007년 9월 17일, 2012년 12월, 2014년 3월 확인자료

국민 보건, 환경 보호, 안전 등을 이유로 수입금지 품목을 지정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수입금지 품목은 아래와 같다.

- 야생 동물과 야생 동물 제품
- 농업 제품

- 식물과 식물 제품, 토양
- 총기와 탄약
- 유적 및 국가 기념물
- 현지 통화
- 외화
- 철 및 모든 장치 또는 알코올, 정제에 사용되는 장치
- 칼, 잠금 블레이드
- 포르노 자료
- 수은 포함된 피부크림
- 교도소에서 만든 물품

다. 중고 속옷의 매매와 사용 금지법 제정

짐바브웨는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세계 각 국에서 중고 속옷을 기증받았고, 국민들은 자율적으로 이를 시장에서 매매하고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 측은 중고 속옷의 착용이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이를 제재해야 한다며 중고 속옷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새로운 법률에 따라 2011년 12월 30일부터 중고 속옷의 수입과 거래뿐 아니라 기증받은 물품의 재사용이 모두 금지된다.

4. 대한수입규제 동향

2015년 12월 기준, 한국에 대한 수입 규제는 확인된 바 없음.

5. 관세제도

짐바브웨 관세율 현황

품목	양허관세율(평균)	실행관세율(평균)
농산물	140.1%	23.4%
비농산물	11.6%	16.9%
전체	89.2%	17.8%

자료: WTO statistics Database

주: 실행관세율(Simple Average MFN 관세)은 2012년 기준

짐바브웨 재무부는 2007년 4월부터 시행해온 사치품에 대한 수입관세 외환징수 제도와 관련하여 대상 품목을 자동차, 담배 및 핸드백 등 약 110여개 에서 대폭 확대하는 관세법 시행세칙 개정안을 2007년 9월 14일 공고하였다.

개정안은 2007년 9월 7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추가된 대상 품목은 HS 8단위 기준으로 270여 개이다. 성인·아동 남녀 의류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바닥 커버재료(카펫 등 섬유재질), 양말류, 장갑류, 침구류, 화장실/테이블/부엌용 린넨류, 신발류, 냉장고 및 오븐류, 소형 라디오, TV 수신장치를 포함하지 않은 컬러 모니터 등이 해당된다. 40~60%의 증가세 및 종량세가 동시에 부과된다.

관세법 시행세칙 개정안

품목	증가세	종량세
바닥 커버 재료	40%	-
의류, 양말류, 장갑류, 침구류	60%	Kg당 10 달러
린넨류	50%	Kg당 10 달러
신발류	60%	켈레당 5 달러
냉장고 및 오븐류	60%	개당 45 달러
소형 라디오 및 컬러 모니터	60%	개당 50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6. 주요인증제도

짐바브웨는 나이지리아, 남아공, 케냐, 가나, 앙골라 등 28개국과 더불어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회원국이다.

ISO는 여러 나라의 표준 제정 단체들의 대표들로 이루어진 국제기구이다. 제품과 서비스의 국제적 교환을 쉽게 하고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인 활동분야에서의 협력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기구이다.

ISO의 종류로는 ISO 9001, ISO 14001, ISO 9001 & ISO 14001, ISO22000, ISO / TS16949, ISO 13485, ISO 17799와 ISO 31000, ISO26000이 있다. 이는 품질보증시스템(QAS)의 세계화 추세에 부응하며 국제환경변화에 능동적, 효율적 대비수단이 된다.

7. 지적재산권

짐바브웨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회원국이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은 1967년 지적소유권의 국제적 보호의 촉진과 국제협력을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지적재산권 분쟁을 조정하고 국제 특허를 심사하는 업무를 한다. 1974년 UN전문기구가 되었으며 정책결정기관인 총회를 3년마다 개최하고 회의를 연다. 발명, 상표, 디자인 등 산업적 소유권과 문학, 음악, 사진 및 기타 예술작품 등 저작물의 세계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음반 및 비디오 등 복사물 범람을 규제하기 위하여 결의를 채택하였다.

8. 통관절차 및 운송제도

가. 통관 규정

1) 소지품 반입 규정

담배류를 반입하는 데에 승객의 연령이나 반입품 수량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반입품 가치가 250 달러를 넘으면 반입할 수 없다. 주류를 포함한 모든 반입품 역시 마찬가지로 새 것이든, 쓰던 것이든 1인당 300 달러를 넘을 수 없다. 또한 주류는 18세 이상의 승객만이 소지할 수 있으며 일반 주류는 5리터, 증류주는 2리터까지 반입할 수 있다.

2) 금지 품목

환각성 암페타민 류 마약, 꿀, 음란 서적, 장난감 화기 류, 자물쇠 달린 칼날 류는 반입할 수 없다.

3) 무기, 탄약 류 반입 규정

짐바브웨 도착 시 세관 직원에게 허가를 발급받아야 반입할 수 있다. 단, 총기와 탄약 수입에 관한 EU 규정 No. 314/2004에 따라 EU 국가에서부터 짐바브웨로 반입하는 것은 금지된다.

4) 기타 규정

농산물, 종자, 구근, 익히지 않은 육류, 의약품은 수입 면허가 요구된다.

5) 반출 규정

1인당 짐바브웨 달러로 5,000달러에 해당하는 물품까지는 자유롭게 반출할 수 있다. 방문객은 짐바브웨에서 구입한 물품은 자유롭게 반출할 수 있다.

6) 애완동물

개와 고양이는 수의사로부터 건강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애완동물은 기내 수하물이나 화물칸을 통해 입국할 수 있으나 객실에 반입할 수 없다.

7) 승무원의 관세 규정

승무원은 USD 20까지 물품을 반입하는 것이 허용된다. 처음 방문한 승무원은 USD 300까지 상품을 반입하는 것이 허용된다.

자료: IATA Travel(<http://www.iatatravelcentre.com/>)

9. 시장특성

가. 소비자 특성

짐바브웨는 소비자물가가 천문학적 단위로 치솟으면서 현지 통화인 짐바브웨 달러가 휴지 조각으로 전락하자 2008년 9월부터 미 달러화, 남아프리카공화국 랜드화 등 외화 사용을 부분 허용하다가 2009년 1월 말 이를 전면 허용하였다.

나. 한국상품 인지도

2011년 3월초에 짐바브웨 총리 모건 창기라이는 짐바브웨에서의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 한국 대기업 브랜드 이미지가 높다고 하였다.

다. 짐바브웨의 경제

짐바브웨는 비교적 발달된 제조업, 대규모 상업, 영농 등 생산적인 농업 기반, 다양한 광물자원, 풍부한 관광자원 등으로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다음으로 산업화의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상당한 경쟁력을 인정 받은 바 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에 들어 채택한 과격한 토지개혁정책 강행 및 민주화 세력 탄압으로 서구 원조 공여국들과 대립하면서 초래한 정치, 경제적 위기는 산업 전반에 걸쳐 극심한 침체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백인농장 환수로 인한 대규모 상업영농 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홍수와 가뭄이 교차하는 기상 이변으로 최근 극심한 식량난까지 겹쳐 독립이래 최악의 경제난을 겪었다.

라. 서방국가들과의 관계 악화 및 '동방정책' 추진

영국 및 미국을 필두로 한 EU 등 서방국가들은 짐바브웨 정부의 토지개혁 강행과정에서 야기된 민주주의와 법치의 심각한 훼손, 2000년 이후 총선 및 대선 과정에서의 야당 언론 탄압 및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짐바브웨에 대해 인도적 원조를 제외한 일체의 경제원조를 중단하고, 제재조치를 부과하였다(매년 연장하고 있는 중).

이러한 제재조치는 서방국가들과 짐바브웨간 무역 및 투자 등 경제교류의 전반적인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짐바브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국제사회에 확산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영국 등 서방국가들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IMF 및 World Bank 등 국제금융기구는 대짐바브웨 자금지원을 중단하고, 짐바브웨의 투표권을 중지시킨 사례도 있다.

10. 바이어 발굴

가. 협회 정보

비즈니스 협회에 직접 연락 또는 방문을 하면 바이어를 발굴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비즈니스 협회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 웹사이트
Zimbabwe National Chamber of Commerce	(263 4) 753444/9	Dolphin House, 3rd Floor ,82 Rezende Street	info@zncc.co.zw http://www.zncc.co.zw
Confederation of Zimbabwe Industries	(263 4) 7727 6317	Fidelity Life Tower, 4th floor	czi@primenetz.com http://www.czi.org.zw/

나. 코트라 바이어 찾기 서비스

바이어 찾기 서비스는 고객요청에 따라 전세계 해외 무역관에서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바이어 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TRA 의 바이어 찾기 서비스는 고객 의뢰 시점에 해외 무역관에서 바이어를 접촉, 발굴하여 KOTRA 수출전문위원과 고객이 공동으로 확인 후 고객이 거래알선을 추진하는 서비스임. ○ 정보내용은 고객의뢰 품목 현지시장 핵심 포인트, 시장동향요약, 관심바이어 (1개사 이상) 및 잠재바이어(3개사 이상)로 구성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어 찾기 서비스는 국내생산제품의 바이어 발굴인 경우 가능하며 제품에 대한 영문카탈로그 혹은 영문 홈페이지를 보유한 경우에 이용 가능함. ○ 모든 조사는 현지 무역관의 사전검토 후 진행되며 사전검토 및 조사 중 다음과 같은 사유로 조사가 거절될 수 있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국가의 직, 간접적인 수입제한 품목인 경우 2) 해당 국가의 시장성이 미약하거나 거래의사를 가진 바이어가 거의 없는 경우 3) 해당 무역관의 지사화 품목인 경우 4) 3개월내 동일품목으로 조사가 기 진행된 경우 ○ 이 서비스는 정확한 바이어 정보전달을 위한 것으로 바이어의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보장하는 서비스는 아님.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TRA 사업안내: 1544-4704

다. 전시회 정보

짐바브웨에서는 전시회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6월달에는 '아프리카 environment' expo를

주최 하였으며, 11월 둘째 주 하라레에서 Food and Wine Expo가 주최 하였다.

라.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짐바브웨에서는 인터넷으로 바이어를 발굴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아래 사이트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 Zimbiz Business Connection
- DB 검사는 가입만 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광고 또는 다른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이트 가입이 필요하다.
- 홈페이지: <http://www.zimbiz.com/>

11.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 Pakprint
 - 개최시기: 매년 4월 말
 - 장소: Zimbabwe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re(ZIEC)
 - 주최측 연락처
 - 전화: +263-9-884911-15
 - 팩스: +263-9-884921
 - 이메일: zitf@zitf.co.zw

- ZITF- Zimbabwe International Trade Fair
 - 개최시기: 매년 4월 말
 - 장소: Zimbabwe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re(ZIEC)
 - 주최측 연락처
 - 전화: +263-9-884911-15
 - 팩스: +263-9-884921
 - 이메일: zitf@zitf.co.zw

- Mine Entra International Trade Fair (광업, 엔지니어링, 수송기계 등 분야 전문 박람회)
 - 개최시기: 매년 7월
 - 장소: Bulawayo
 - 주최측 연락처
 - 담당자: Mrs. Harrison
 - 전화: +263-9-884911
 - 팩스: +263-4-884921
 - 이메일: zitf@mweb.co.zw
 - 홈페이지: www.mweb.co.zw/zitf

- Harare Agricultural Show
 - 개최시기: 매년 8월 말~9월 초
 - 장소: Harare
 - 주최측 연락처
 - 전화: +263-4-780963
 - 팩스: +263-4-780967
 - 이메일: exbpark@africaonline.co.zw

- IT Africa
 - 개최시기: 9월 말
 - 장소: Harare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re
 - 주최측 연락처

- 담당자: Mr. Mellon
- 주소: 256 Herbert Chitepo Ave/Cnr 5th Street, Harare, Zimbabwe
- 전화: +263-4-702279, 794182
- 팩스: +263-4-702279
- 이메일: itafrica@zol.co.zw

IV. 투자

1. 투자환경

가.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1) 짐바브웨 투자센터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1989년 재무부 산하에 짐바브웨 투자센터(Zimbabwe Investment Centre)를 설립하였으며 특히 1990년부터 시작된 경제 구조조정 계획을 추진하였다. 기술 습득, 산업자본 유치, 수출 및 고용 증대 및 외환 확보 등의 차원에서 적극적인 해외 투자유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 투자 유치

짐바브웨는 짐바브웨 투자센터(ZIC)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짐바브웨는 영어가 공용어이며 대부분이 중등 교육을 이수한 양질의 노동력을 가지고 있으며 임금 단가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또한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 비해 잘 발달된 사회 간접자본, 좋은 기후 조건, 남부 아프리카 지역 인근 국가와의 지리적 인접성, 투자 안전성 등을 내세우고 있다. 1997년 “완제품 수입관세 인상 및 기계/플랜트 및 원자재에 대한 면세 또는 관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면서 한때 1억 8300만 달러의 투자 유치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3) 동방 정책

토지개혁정책 추진 등을 배경으로 대립하게 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및 여타 유럽연합 국가들로부터의 외국인 투자가 부진해지면서 짐바브웨 정부는 최근 “동방 정책”이라는 이름 하에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 한국 등으로부터의 투자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나. 투자 관련 양자 협정 및 국제기구 가입 현황

- 양자투자보장협정
- 영국, 중국, 독일, 모잠비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위스, 태국, 이란, 덴마크, 스웨덴, 인도, 자메이카, 이탈리아, 싱가포르, 미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쿠웨이트, 모리셔스, 이집트 등 27개국과 체결

- 이증과세방지협정
 - 불가리아, 캐나다, 프랑스, 독일, 모리셔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웨덴, 영국 등 12개국과 체결

- 투자관련 국제기구/협약 가입 현황
 - Multiple Investment Guarantee Agency(MIGA)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ICSID)
 - New York Convention on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 UN Convention of International Trade law(UNCITRAL) 등

2. 외국기업 투자동향

가. 짐바브웨의 외국 기업 투자 동향

2011년 짐바브웨의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2010년 대비 2011년 두 배 가량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는 주변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액수이다. 모잠비크는 2011년 20억 달러를, 남아프리카지역은 총 63억 달러, 아프리카 전체는 426억 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액을 기록하였다. 세계은행 비즈니스 리포트 2012에 의하면 짐바브웨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라이선스, 허가서, 신용획득, 투자자 보호 및 높은 세율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더 많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는데 있어 큰 방해가 된다고 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짐바브웨 정부는 2010년 Zimbabwe Investment Authority One-Stop Shop(ZAI OSS)를 개설하여 투자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하였다. 주 목적은 사업허가획득, 허용 및 승인 절차, 투자 시 비용과 시간을 단축하는 등 투자절차를 단순화하고 단축하는 것이다. 하지만 2012년 현재까지도 이러한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18개월 이내에 투자 법 개정이 완성될 것으로 보여지고 사업을 등록하는 기간이 현재 49일에서 개정 후 5일 이내로 줄어들 것이다. OSS의 개설식에서 경제계획개발부 장관 Samuel Undenge는 정부는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입법절차확인을 이미 시작하였고 OSS Programme의 효율성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액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짐바브웨 비즈니스 플레이어는 투자자에게 비우호적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직접 투자가 향후 5년간 두 배가 될 것이라는 되고 당국의 경제가 매년 7.3% 증가할 수 있다는 것에 희망적이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이것이 정부의 주요 정책의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고 회의적이다.

ZANU-PF 당의 Mugabe 대통령은 짐바브웨의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변화(Zim Asset)를 위한 짐바브웨 논제에 최근 새로운 경제 청사진을 발표했지만, 다른 문서와 같이 경제학자들과 사업대표들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정부의 통계는 2009년부터 FDI-국내총생산(GDP) 비율이 필요량의 반 이하인 15%의 평균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World Bank에 따르면 투자 대상 보다 평균치가 낮은 남아프리카 국가가 더 많은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초인적인 작업을 직면하고 있다는 뜻이다. 짐바브웨 비즈니스 대학원 강사인 Tony Hawkins는 Harare에 있는 짐바브웨의 공인 회계사의 연구소에 짐바브웨는 33%의 투자나 GDP가 매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 성장은 많은 제약조건으로 인해 제한되어 짐바브웨 국가자산의 목표에 도달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성장이 투자로만 이뤄지고, 투자가 저금으로만 이뤄진다면, 소비의 성장은 대체로 느리게 이뤄질 것이다. 시사 해설자들은 당사의 외국 소유의 회사가 지역 주민에 지배 지분을 판매하고 투자자들은 쫓아내는 것을 강요하는 토착화와 권한 부여의

정책을 비난한다.

다른 경제학자들은 정해진 목표를 충족하는 것에 비해 형편없는 투자 환경과 거대한 부채가 걸려있는 것을 전망하고 있다. 짐바브웨는 GDP의 110%인 107억 달러의 예측된 부채를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 국가통계에서 짐바브웨가 10월의 연간 인플레이션이 9월의 0.86%에서 0.59%로 낮아짐에 따라 유동적인 조건에서 약한 소비자의 수요를 인플레이션과의 투쟁에서 이길 것으로 비춰진다. 2013년 인플레이션은 3.9%로 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The Africa Report

짐바브웨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 추이

(단위: US\$ 백만)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투자금액	172	364	380	350	51.6	105.4	166	387	400	400

자료: Tradingeconomics, World Investment Directory (2015년 12월 확인정보)

나. 주요 외국 투자기업

대짐바브웨 투자 기업 현황

업종	기업명	국적	종업원수
Machinery and Equipment	Kuzocm Co	Russian	2000
Food, Beverage and tobacco	Olivine Industries (PVT) LTD	US	1900
Wood And Wood products	Hunyani Paper and Packing (PVT) Ltd	Georgia	1455
Chemicals and chemicals products	Unilever South East Africa	UK	430
Manufacture of Petroleum	BOC Zimbabwe	UK	370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Circle Cement LTD	UK	200
Food, Beverage and tobacco	Nestle Zimbabwe (PVT)Ltd	France	182
Mining and quarrying	Cluff Mining Zimbabwe	UK	4
Automobile Trade and repair	Hetz Corporation	US	
Wholesale trade	Zimbabwe Bata Shoe Company Limited	Netherlands	3200
Forestry and Fishing	The Wattle Company Limited	Nigeria	3000
Other Business Activities	Zimbabwe Leaf Tobacco Company	US	350
Electricity, gas and water	ABB	Switzerland	

자료: World Investment Directory

3. 한국기업 투자동향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진출 현황 및 투자업종 현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대짐바브웨 투자 진출 현황

(단위: US\$ 천)

구분	신고		투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1	3	631	3	577
2012.09	1	378	1	354
2013	2	1,156	3	1,156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대짐바브웨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US\$ 천)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Total	3	3	631	3	577
광업	1	1	150	1	120
숙박 및 음식점업	1	1	103	1	103
도매 및 소매업	2	1	1,156	3	1,156
부동산업 및 임대업	1	1	378	1	354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4. 투자진출 성공실패사례

가. 남아공 기업 머레이 & 로버츠의 짐바브웨 진출 사례

머레이 & 로버츠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건설 기술 용역 회사 가운데 선도기업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중동, 동남아시아, 호주, 북미, 남미에서 활동하는 머레이 & 로버츠는 본거지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 두고 JSE(Securities Exchange and the Johannesburg Stock Exchange)에 상장되어있다. 영국에 국제 사업 총괄 사무소가 있고 주요 거점은 호주, 보츠와나, 캐나다, 나미비아, 아랍 에미리트 연방, 짐바브웨에 있다.

존 머레이는 1902년 케이프타운에 본사를 둔 건설 회사 머레이 & 스튜어트를 창업했다. 토목 기술자인 더글러스 조지 머레이 존 머레이의 아들이자 후계자였다. 1928년에 그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DG 머레이는 그 회사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건설 회사로 성장시켜왔다. 그의 친구인 더글러스 로버트가 설립한 로버트 건설의 대주주가 되려고 하던 도중에 말레이가 사망하게 되었다. 이후 1967년에 2개의 회사는 합병하여 말레이 & 로버트사가 되었다.

이 그룹은 계열사인 머레이 & 로버츠 짐바브웨의 주식 49%를 보유하고 있다. 짐바브웨가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순조롭게 영업을 계속하여 2009년 하라레에 영국 영사관의 건축물을 완성시켰을 뿐만 아니라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채굴 부문에 투자를 계속하여 왔다.

Murray & Robert 짐바브웨의 주주

TOP 10 BENEFICIAL OWNERS			
Rank	Beneficial Owner	Holding	%
1	Public Investment Corporation (ZA) *	47,598,272	14.34
2	New World Fund Inc (US)	15,555,000	4.69
3	Liberty Life Assoc of Africa (ZA)	12,834,894	3.87
4	Murray & Roberts Letsema Sizwe (Pty) Ltd (ZA)	11,616,331	3.50
5	Letsema Vulindlela Black Executives Trust (ZA)	9,956,779	3.00
6	Murray & Roberts Trust (ZA) *	7,757,368	2.34
7	Murray & Roberts Letsema Khanyisa (Pty) Ltd	7,374,893	2.22
8	Lazard Emerging Mkts Portfolio (US) *	6,097,992	1.84
9	Old Mutual Life Assurance Co Ltd (ZA)	5,598,372	1.69
10	Investment solutions (ZA) *	5,526,571	1.66

자료: JETRO

향후 인프라, 광고, 채굴 부문에 기대되는 기회를 잡기 위한 사업 재구성이 시작되었다. 머레이 & 로버츠는 새로운 공장과 장비 및 교육, 개발, 리더십에 있어서의 사원 교육분야에서 사업을 재구성함으로써 미래의 비즈니스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나. 우리 기업 진출 성공 사례

□ 현대 기아자동차

1994년 10월 현대자동차의 엑셀 승용차 조립 라인이 설립되었다. 현지인이 운영하는 영국, 일본 자동차 조립 공장의 일부 라인을 활용하여 연간 9천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였다. 1998년 말까지 약 3천대를 생산한 후 보츠와나로 이전하였다.

현재, 현대·기아자동차 제품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에이전트로부터 권한을 이양 받은 현지 대리점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는 현재 판매가 중단되었다.

□ 포스코, 마라나 인수

포스코가 짐바브웨 페로크롬 제련사 마라나를 인수해 스테인리스스틸 사업을 강화했다. 특히 이 인수는 포스코 회장이 추진해온 아프리카 개발사업의 첫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12년 2월, 포스코는 마라나의 지분을 보유한 스위스 구타 및 앵커홀딩스와 협약을 체결했다.

두 회사의 지분을 최종 인수하면 포스코는 마라나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마라나는 짐바브웨에서 세 번째로 큰 페로크롬 제련회사로 연산 2만 8000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약 700만 톤의 크롬 광산을 보유하고 있다.

5. 주요 투자법 내용

가. 외국인 투자회사 설립허가 요건 및 절차

짐바브웨 내 모든 법인은 (Companies Act) 또는 사단법인 법(Private Business Corporation Act)에 의거하여 기업청(Registrar of Companies)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절차가 완료될 경우 법인 설립 인가증을 획득하게 된다.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총 3주 정도가 소요된다.

1) 신규 회사 설립 절차

- Chief Registrar of companies에 CR 12 신청서 제출
- 상기 신청서에 의거 14일 이내에 회사명 검색 및 회사명에 대한 옵션 제시
- 회사명 선택
- 제안서(Memorandum)와 회사 정관(Articles of Association) 제출
- Registrar of companies에 편입

2) 투자계획 승인 및 등록 절차

모든 신규 외국 투자회사는 ZIA(Zimbabwe Investment Authority)에 투자 계획서(ZIA 1 양식 작성)를 제출한 후 ZIA로부터 이에 대한 승인 및 투자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상기 ZIA1 양식은 ZIA 사무소나 웹사이트 www.zia.co.zw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신청서 제출시 500 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허가서 발급 시 추가로 2500 달러를 지불해야 하며, 수수료는 반환 불가이다.

3) 수수료

상기 절차 시 신청서 제출시 \$500(반환불가)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상기 허가서 발급 시 추가로 \$ 2500 지불 필요

4) 외국인투자자의 지분 참여 허용 주요 한도

- 제조업, 광업, 관광업: 100%
- 단, 광업분야의 경우 짐바브웨 정부는 외국인 참여 지분을 제한하는 광업법 개정안을 추진 중
- 농업, 서비스업: 70%까지
- 공공 인프라 분야: 40%까지
- 짐바브웨증시(Zimbabwe Stock Exchange) 상장기업: 특정 상장기업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 개인당 10%까지, 외국인 투자 그룹은 40%까지
- 기타(소매, 수송, 현금작물 및 식량작물 1차생산 분야 등): 35%까지

5) 외국인투자 관련 세금 주요 내용 관련 법령

- 소득세법(Income Tax Act) : 과세대상 등 규정
- 재정법(Finance Act) : 세율 및 공제비율 규정

6) 과세대상에서 공제되는 예 및 공제비율(allowable deductions)

- 자본재(산업용 건물, 농장 개선, 물품/장비, 자동차 등) 지출분: 50%
- 광업 분야(굴착 장비 등) 지출분: 100%
- 농업 분야(borehole, fencing, 수자원보존 시설 등) 지출분: 100%
- 손실금: 최대 6년까지 인정
- 성장중점지역(Growth Point Areas)에 대한 추가 공제: 15%

7) 주요 세율

- 기본 법인세율(corporate income tax): 30%
- 성장중점지역(Growth Point Areas)에 대한 특혜 세율
 - 제조업: 10%
 - 도로, 교각, 위생 및 식수 시설 제공: 15%
 - 최초 5년간 특혜 세율을 적용하고, 이후에는 일반세율 적용
- Build, Operate and Transfer(BOT) 사업에 대한 특혜 세율
 - 최초 5년간: 0%
 - 차기 5년간: 15%
 - 차차기 5년간: 20%
 - 이후: 30%
- 제조업 생산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에 대한 특혜 세율: 50%
- 부가가치세율(VAT)
 - 사치품, 5년 이상 중고차 등: 25%
 - 기타 소비재, 호텔 숙박료 등 서비스: 17.5%
- 부동산 매각에 따른 자본이득세율: 20%
 - 소득세 과세대상은 자본이득 과세대상에서 제외
- 원천과세세율(withholding tax)
 - 상장기업 배당금: 15%
 - 비상장기업 배당금: 20%
 - 상장기업 주식 매각: 5%
 - 금융이자소득: 20% 등

나. 내국민 지분확대법

짐바브웨 Robert Mugabe 대통령은 제조업/광업/금융업/관광업 등 경제 전 분야에서 해당 업체의 지분 중 최소 51%를 주재국 내국인들(indigenous Zimbabwean)에게 의무적으로 유상 양도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호(1932) 내국민 지분확대 법안(2007.6.22 입법예고)에 최근 서명하였으며, 동 법안은 별첨 3.7자 "Indigenization and Economic Empowerment Act (Chapter 14:33, No. 14/2007)"로 확정 및 공포 하였다.

- 모든 경제분야(all sectors of the economy)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거래(소유권 이전, 합병, 분할, 신규업체 설립 등)의 총 지분 중 최소 51%를 주재국 내국인이 보유토록 의무화.
- 주무부처(Ministry of Indigenization and Empowerment)가 해당 업체/거래의 상황에 따라 지분 양도 비율 최소 51%를 달성해야 하는 이행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 보유.
- 금번 법안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 내용을 주무부처에 통보토록 의무화하고, 동 주무부처가 해당 거래의 승인 및 불승인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보유.
- 주무부처는 상기 통보의무를 위반한 업체/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기관으로 하여금 기준에 발급된 인허가 취소 또는 인허가 갱신을 중단토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 보유.
- 해당 업체가 지분을 양도할 적절한 주재국 내국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 주무부처가 동 업체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내국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권한 보유.
- 주재국 내국인들의 지분 인수를 위한 재정지원을 위해 "내국민 지분확대 지원 기금(Indigenization and Economic Empowerment Fund)" 신설(동 기금 운영재원은 정부 예산, 업체들에 대한 부과금(levies), 기부금, 차입금 등으로 충당).
- 금번 법안의 적용을 받게 되는 해당 업체는 주무부처 결정에 (Administrative Court)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최종 판결 시까지는 일단 주무부처 결정을 이행토록 규정 등.

이와 관련, 주재국 내국민화부(Ministry of Indigenization and Empowerment) Paul Mangwana 장관은 3.11 기자회견을 통해, 금번 법은 주재국 국민과 외국인투자업체간에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guiding principle'으로서만 제시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인수대상 지분의 가치 및 인수 주체 등은 해당 주재국 내국민과 외국인투자업체간의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51% 지분 양도는 당장 하루 아침에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주재국 정부가 제시할 시한(time frame)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외국인투자업체들이 특별히 놀랄 이유가 없다고 말하였다.

또한, 동 장관은 향후 주재국에 투자하려는 외국인투자자는 금번 법에 따라 주재국 내국민들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모든 사업 분야가 51% 지분 양도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소규모 가내사업(small family business) 및 비전략분야(non-strategic sectors)는 금번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한편, 남아공 광업 전문 인터넷 주간지인 "Mining Weekly (www.mingweekly.co.za)" 지 (2008.3.10자)는 주재국 주요 플라티넘 광산인 Mimoso mine과 최대 플라티넘 광산업체인 Zimplats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남아공 Aquarius Platinum사 및 Impala Platinum사의 주가가 3.10 현재 각각 17.7% 및 5% 하락했다고 보도하였다.

한편, 주재국 정부가 2007.11월 입법 예고한 광업분야에서의 내국민지분 확대 관련 광업법 개정안(Mines and Minerals Amendment Bill, 2007)이 국회 심의도중 회기 종료로 폐기된 바 있으나, 주재국 Mugabe 대통령과 여당이 2008.3.29 예정된 대선 및 총선 주요 공약으로 광업분야에서의 내국민화 정책 추진도 제시한 바 있어, 금번 선거에서 동 대통령 및 여당이 승리할 경우 광업법 개정안이 다시 상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참고사항

금번 내국민지분확대법 공포로, 주재국내 주요 외국인투자업체 지분을 주재국 내국민들이 인수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모두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주재국 정부는 지분 양도 시한설정 등 구체적인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외교부

6. 진출형태별 절차

가. 회사 등록

짐바브웨의 모든 회사들은 회사법과 개인 사업 법인 법률에 의해 기업등록을 해야 한다.

나. 회사운영 시작 절차 (현지 업체)

No	절차	소요시간	소요비용
1	회사이름을 Chief Registrar of Companies에 등록 하기	7일	US\$ 5
2	기업의 등록과 문서 각서. 회사 등록시에는 반드시 회사의 이사와 비서를 함께 등록 해야 한다. Form CR14는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이 바뀌었을 때 다시 신고를 할 수 있는 서류이다.	14일	등록비는 US \$100당 \$5.
3	세금, 부가세 등록 절차 짐바브웨 수익 기관 사무소에서 등록을 할 수 있다. 자세한 규정은 짐바브웨 재정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4일	무료
4	연금, 사고 예방 및 보상 체계에 대한 국립사회보장기관에 등록/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 월급에서 4%씩 지급해야 함	14일	무료
5	인력개발기금 등록/ 가입 고용주만 고용인의 월급 1% 지급	1일	무료
6	보건부에서 지급한 라이선스 신청 통지가 필요	1일	US \$20
7	무역 및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지역 신문 응용 프로그램에 광고	4-6 주	US \$30
8	하라레 시청의 라이선스 오피스에 새로운 라이선스의 발급 신청서를 제출	30일	US \$530
9	라이선스 직원이 등록 회사를 방문하는 절차 모든 작업들과 환경들이 확실하게 잘 갖추고 있는지 확인 절차	1 일	무료

자료: Doing Business 2014, Zimbabwe

다. 연락 기관 연락처

회사 설립 및 등록 모든 투자 절차는 아래 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Zimbabwe Investment Center(ZIC)
- 주소: Investment House, 109 Rotten Row, Zimbabwe
- 전화번호: (263-4) 757931-5, 759911-5/8
- 팩스: (263-4) 759917
- 이메일: info@zic.co.zw

- 홈페이지: www.zic.co.zw
- Export Processing Zone Authority(EPZA)
 - 주소: P.O. Box 661484, Kopje, Harare Zimbabwe
 - 전화번호: (263-4) 780147-8, 755918
 - 팩스: (263-4) 773843
 - 이메일: info@epz.co.zw
 - 홈페이지: www.epz.co.zw
- Reserve Bank of Zimbabwe(RBZ)
 - 주소: Number 80, Samora Machel Avenue, P.O.Box 1283, Harare, Zimbabwe
 - 전화번호: (263-4) 703000
 - 팩스: (263-4) 707800
 - 이메일: rbzmail@rbz.co.zw
 - 홈페이지: www.rbz.co.zw

라. 추천 법무 법인/회계 법인

1) 법무 법인

- ATHERSTONE & COOK
 - 주소: 7th Floor, Mercury House, 24 G. Silundika Ave
 - 사서함: P.O. Box 2625, Harare
 - Tel: 263-04-704244/794994
 - Fax: 263-04-705180/794998E-mail: praetor@africaonline.co.zw
- CHIHAMBAKWE MUTIZWA & PARTNERS
 - 주소: 8th Floor, Regal Star House, 25 G. Silundika Ave
 - 사서함: P.O. Box 4316, Harare
 - Tel: 263-04-703834/708595/6/7
 - Fax: 263-04-700552
 - E-mail: cmplaw@cmplaw.co.zw
 - 웹사이트: www.cmplaw.co.zw
- GUTU & CHIKOWERO
 - 주소: Negoma Chambers, 160 Samora Machel Ave., West Belvedere, Harare
 - Tel: 263-4-774271 or 759876/7
 - Fax: 263-4-759877
 - E-mail: gutulaw@mweb.co.zw
 - 웹사이트: www.gutulaw.com

- CALDERWOOD BRYCE HENDRIE & PARTNERS
- 주소: 6th, 7th, & 8th Floors, Central Africa House, Jason Moyo Street
- 사서함: P.O. Box 187/276, Bulawayo
- Tel: 263-09-71411/74834/74809
- Fax: 263-09-74839
- E-mail: callaw@mweb.co.zw

2) 회계 법인

- Ernst & Young
- 주소: Angwa City, Crn Julius Nyerere Way, Kwame Nkrumah Avenue, Harare, Zimbabwe
- Tel: + 263 4 750 979
- Fax: + 263 4 750707
- 웹사이트: <http://www.ey.com.br/ZW/EN>

7. 투자입지여건

가. 투자입지 관련 기관

투자기업 유치 확대 및 짐바브웨의 수출 증대를 도모하고 프로젝트 허가, 관리 및 절차를 승인하던 기관인 Export Processing Zones Authority (EPZA)와 Zimbabwe Investment Centre(ZIC)가 ZIA Act(2006)법안 하에 두 기관이 합병하여 2007년부터 Zimbabwe Investment Authority(ZIA)로 운영되었고, EPZA와 ZIC는 동시에 폐쇄되었다.

짐바브웨 정부는 최근 기존의 외국인 투자 법을 포괄적으로 개정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짐바브웨 투자 시 조금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기존 법률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나. 높은 경제발전 잠재력 보유

짐바브웨는 풍부한 광물자원 및 관광자원, 좋은 기후 및 토양 조건을 바탕으로 한 우수한 농업기반, 비교적 우수한 경제 인프라, 양질의 노동력(문자해독률이 90% 이상) 및 역내 시장에 대한 뛰어난 입지조건 등을 보유하고 있다.

광물자원의 경우, 200여종의 다양한 광물을 보유하고 있고, 상업적 가치가 있는 것만 해도 약 30여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금(총 광업생산의 1/2 차지), 백금(세계 2위 생산국), 크롬(세계 3위 생산국), 석면(세계 3위 생산국), 리튬(세계 3위 생산국), 석탄 등 광물의 세계적인 주요 생산국으로 알려져 있다.

농업의 경우, 전 국토의 약 50%가 경작 가능한 농지이며 경제 위기가 본격화되기 전인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좋은 기후와 토양 조건을 바탕으로 대규모 상업영농 체제를 운영하였다. 식량을 자급자족함은 물론 육류, 옥수수, 담배, 면화 및 설탕 등을 여타 아프리카로 수출하면서 “아프리카의 bread-basket”으로 불릴 정도로 농업이 발달했던 국가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래 추진한 토지개혁정책 등을 배경으로 발생한 서방국가들과의 갈등과 백인농장 환수 이후 대규모 상업영농 체제의 붕괴 및 홍수/가뭄 등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독립 이래 최악의 경제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다. 독립 후 1980년대 안정적인 경제성장 국가

1980년 독립 당시 1 달러가 0.68 짐바브웨 달러로 교환될 정도로 짐바브웨 경제는 건실 했다.

짐바브웨는 1981년 개최된 짐바브웨 재건, 개발 원조공여국회의(Zimbabwe Conference on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를 통해 28억 달러의 원조공약을 확보하고, 인종 및 부족 간의 화합 정책 등을 통해 1980년대 연평균 4%대의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Mugabe 정부는 1984년 마르크스주의 일당독재국가 및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관한 정각을 채택하기도 하였으나, 1986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First Five-Year National Development Plan)을 발표한 이후, 1989년에는 냉전 종식 등의 분위기를 배경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였다. 이어, IMF 및 World Bank의 지원을 받아 시장원리 존중을 골자로 하는 제1차 경제구조 조정계획(Economic Structure Adjustment Programme) 및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Second Five-Year National Development Plan)을 마련하는 등 경제통제 완화조치를 시행하였다.

라.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상황 악화 조짐

1991년 파리에서 개최된 짐바브웨 원조공여국회의(Paris Club)에서 짐바브웨 경제개혁 정책 지원을 위한 7억 미불의 원조가 약속된 데 이어, Mugabe 정부는 1996년에서 2000년까지 매년 4~6%대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짐바브웨 경제사회변혁 프로그램(Zimbabwe Programme for Economic and Social Transformation)을 마련하는 등 1980년대의 견실한 성장을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1992년 과거 수십 년 간 발생한 적 없었던 최악의 가뭄이 발생하면서 GDP 5.8% 마이너스 성장(IMF 추정치는 -8.4%) 및 인플레이션 50%(IMF 추정치는 46%) 기록 등 경제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1995년 제2차 가뭄 사태 발생 이후 식량난 가중 및 물가 급등 현상이 지속되면서, 1990년대 후반 재향 군인들 및 일반 서민들에 의한 소요 및 폭동사태로 이어졌다.

마. 서방국가들과의 관계 악화 이후 경제난 심화 본격화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민심 이반에 대응하여 짐바브웨 정부는 1997년 재향군인들에게 5만 짐바브웨 달러(약 5,000 달러)를 위로금으로 일시 지급하였다. 또한 1998년 콩고 내전에 참전(1998년에서 2002년까지 10,000~13,000명의 병력 파견)함으로써 감당키 어려운 재정난이 발생하였다.

Mugabe 정부는 1998년 개최된 짐바브웨 토지개혁 관련 원조 공여국 회의에서 서방국가들로부터의 대규모 원조자금 유입을 기대하였으나, 영국을 위시한 서방국가들은 Mugabe 정부에 의한 약 1,500개 백인 상업농장 강제수용 등을 이유로 토지개혁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합법성 보장을 요구하였다. 짐바브웨 정부는 과거 식민종주국인 영국의 무조건적인 재정지원을 요구하면서, 토지개혁 재원 확보를 위한 합의 도달에 실패하였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 재향 군인들에 의한 백인농장 습격 및 불법점거 사태가 본격화 된 데 이어, 2000년 총선 및 2002년 대선을 거치면서 서방국가들은 야당탄압, 인권유린, 언론탄압, 법치주의 부재 등을 이유로 짐바브웨에 대한 경제 원조를 중단하였다. IMF 및 World Bank의 자금지원도 차단되면서, 짐바브웨 경제난이 본격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국제 기구의 짐바브웨 지원액 추이

(단위: US\$ 천)

기구명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2006
IMF	0	53,802	32,234	0	0	0
세계은행	4,037	88,857	88,857	0	30,527	0
아프리카 개발은행	1,941	0	0	0	0	0

자료: 짐바브웨 중앙은행 (2014년 3월 기준 입수 가능 최신 자료)

바. 통제 일변도의 경제정책으로 인한 경제난 가중

Mugabe 정부는 1999년 새천년경제회복계획(Millennium Economic Recovery Plan) 및 2003년 국가경제회복계획(National Economic Recovery Plan)을 발표한 데 이어, 민간인 출신의 Gideon Gono를 중앙은행 총재로 2003년 말 새로 임명하여 짐바브웨 경제재건을 위한 사실상의 총책임자 역할을 맡겼다.

그러나 짐바브웨 정부가 2000년대 초반부터 강화해온 가격통제, 외환통제, 수출입통제 등 통제 일변도의 경제 정책은 실물 및 금융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시장왜곡을 가져왔다. 농업, 광업, 제조업 등 주요 산업기반의 극심한 침체를 초래함은 물론, 2006년 4월 인플레이션(전년 동기대비)이 역사상 최초로 1,000%를 돌파하였다. 2007년 10월에는 10,000%, 2008년 5월에는 220만%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하였다(짐바브웨 통계청). 이는 전쟁 또는 내전을 겪고 있지 않은 국가 중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이다. 경제성장을 또한 1999년 이래 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1980년 독립 이래 최악의 경제난에 직면해 있다.

특히, Mugabe 정부는 2008년 경제 전분야에서 해당 업체의 지분 중 최소 51%를 짐바브웨 흑인들에게 의무적으로 유상으로 양도하도록 하는 내국민 지분확대법 (Indigenisation and Economic Empowerment Act)을 확정, 공포하였다. 최대 산업 분야인 광업 분야에서의 내국민지분확대를 위한 광업법개정안(Mines and Minerals Amendment Bill) 추진을 별도 검토하고 있는 등, 경제 민족주의적 통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사. 수출가공지역 및 관광개발지역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 수출가공지역(Export Processing Zone)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 최초 5년간 법인세 면제(tax holiday)
- Tax holiday 경과 후 법인세는 15%의 특혜 세율 적용
- 원자재 및 자본재 무관세 수입
- 비거주자 주식 배당금에 대한 세금 (Non-Resident Shareholders Tax) 면제
- 외국법인 지점에 대한 지점 수익세 (branch profits tax) 면제
- 주식 배당금에 대한 원천과세(withholding tax on dividends) 면제
- 경영관리 및 기술 협약, 로열티 협약에 따른 대금에 대한 원천과세 (withholding tax on management & technical fees, remittances and royalties) 면제
- 부동산 매각에 따른 자본이득세 (capital gains tax) 면제
- 부가가치세 환급(VAT refund) 등

□ 관광개발지역(Tourism Development Zone)에 대한 인센티브

- 특혜 세율 적용
 - 최소 5년간: 0%
 - 차기 5년간: 15%
 - 차차기 5년간: 20%
 - 이후: 30%
- 지정된 자본재 수입 시 무관세 수입

8. 투자진출 시 애로사항

가. 부정 부패

2010년 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TI)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 (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 자료에 따르면 총 점수 10점 만점에 2.2점으로 부정부패의 심각성을 보였다. 짐바브웨는 2013년 국제 투명성 기구의 부패인식 지수에 또다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부정한 공공기금 사용에 대한 염려로 인해 정부의 경영정책이 계획대로 실행될 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나. 무역

아직까지는 많이 복잡한 비즈니스 환경, 불공정한 법률 제도 및 잘 알려지지 않은 현지 사정으로 현지 업체와 협력할 필요를 가지고 있다. 또 한 부족한 인프라로 인한 많은 불편한 점이 있다.

다. 불안한 치안

짐바브웨는 수 년 전부터 극심한 인플레이 등 경제피폐로 일반국민들의 생활고 가중 및 실업자 증대 등으로 인해 특히 야간에는(주거침입)강도 및 절도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경제난 악화로 강절도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일몰 후에는 바깥출입을 삼가 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한국인 등 동양인 관광객은 현금을 많이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쉽게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유의 해야 한다. 일부 배낭여행의 경우, 비용절약을 위해 저렴한 숙소에 투숙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들 숙소의 경우 경비가 취약하여 강절도 타깃이 될 수 있으므로, 호텔 등 안전한 숙소를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 길거리에서 암시장 환율로 환전을 해주겠다고면서 접근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외국인의 현금을 노린 강도의 위험성이 있으니, 은행, 호텔 및 공식 환전소 등을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 렌트 차량 이용 시에도 창문을 내리지 않는 것이 좋으며, 차 안에 가방 등 귀중품을 방치하는 것은 도난사고를 유발하는 주요원인이 된다. 하여 차량 운행 중 가방 등 귀중품은 트렁크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라. 높은 HIV-AIDS 감염률과 아동사망률

짐바브웨의 어린이들이 15분마다 한 명꼴로 에이즈로 사망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유니세프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짐바브웨의 어린이들이 매일 96명꼴로 에이즈로 인해 사망하는데 이는 15분에 1명 꼴이라고 밝혀졌다. 신생아 사망률이 8명당 1명 꼴이며, 5세 이하의 어린이 사망률은 50%에 이른다. 이 같이 높은 아동 사망률의 결과로 짐바브웨의 평균수명은 33세에 불과하다.

마. 보건 및 위생

말라리아 수도인 Harare에서는 예방약 복용이 필요치 않으나, 특히 우기(11월-3월)시 빅토리아 폭포 등 지방을 여행 할 경우에는 1주전에 예방약을 복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짐바브웨 공항 입국 시 접종 기록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지방 및 여타 아프리카 국가로의 연계 여행시에는 가급적 사전접종을 받고 돌아 올 것을 권장한다. 짐바브웨 현지인들은 수돗물을 음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가능한 생수를 구입하여 음용할 것을 권장한다.

바. 결제관련

짐바브웨는 극심한 외환부족으로 외환통제가 엄격히 시행되고 있으며, 외국인은 숙박비 및 관광지 등 주요비용을 미불 등 외환으로 지불하도록 되어있다. 간단한 소모품 구입 등 소규모 비용은 현지화(짐바브웨 달러)로 지불이 가능하며, 공항 및 시중에 소재한 은행과 호텔 및 환전소 등에서 환전이 가능하다. 단, 남은 현지화를 미불로 재환전을 할 경우에는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현지화로 사용할 적정 금액만 환전하는 것이 좋다. 일부 고급호텔 및 식당에서는 신용카드가 통용되나, 가능한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자료: 국제통상

9. 노무관리제도

가.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위한 노동 허가

짐바브웨에 투자하는 기업은 짐바브웨 내에서 해당 고용인을 구할 수 없다는 증거를 제시할 경우 임시 노동허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는 노동허가가 발급된 해당 분야에서만 종사할 수 있으며 가족은 취업하지 않는 조건으로 짐바브웨에서 거주할 수 있다.

사회보장기금(National Social Security Authority)에 대한 기여금은 고용인이 피고용 노동자 월 봉급의 3%를 기여해야 한다. 이는 피고용 노동자 부담분 3%를 포함, 총 6%를 납부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산업분야별로 최소 임금액이 상이하며 해당 산업 분야별 노조 및 고용인 단체간 협상으로 결정된다. 여타 경우는 공공, 노동, 사회복지부가 결정한다.

10. 조세제도

가. 개인 소득세

짐바브웨의 개인 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최고 3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3%의 AIDS세가 추가된다. 소득세는 짐바브웨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한해 부과되며 연 183일동안 짐바브웨에 거주하면 조세상 거주자로 인정된다. 짐바브웨 거주자로 분류되는 납세자의 전세계 자산에 대해서 5%의 부동산세가 부과되며, 거주자가 아닌 경우 짐바브웨 내 자산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소득	세율	공제
0~1,980	0%	-
1,981~6,000	20%	396
6,001~12,000	25%	696
12,001~18,000	30%	1,296
18,001 이상	35%	2,196

나. 법인세

짐바브웨의 법인세는 2010년 1월 1일부터 30%에서 25%로 인하되었다. 경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이 짐바브웨에서 이루어지는 기업은 거주자 자격이 부여되며, 짐바브웨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된다. 짐바브웨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본소득세는 부동산과 금융자산 처분 시 부과되는데, 2009년 2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유가증권과 부동산의 판매에서 오는 자본 이득은 5%의 비율로 과세된다. 2009년 2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등록 및 변경에 따른 비용을 공제한 후 20%의 세금과 2.5%의 물가 수당이 부과된다. 법인의 자본 이득세는 원천 징수된다. 또한 3%의 AIDS세가 특별 부과된다.

짐바브웨는 특정 기업들에 대해서 세금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는데, 라이선스 투자자들에게는 최초 5년간 0%의 세율을, 그 이후로는 15%의 세율을 적용한다. 특정 광산업 관련 리스와 광산 경영 업체는 15%, 총 생산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제조업체에는 20%, 관광개발지역에서 관광 시설을 운영하는 업체는 최초 5년까지 0%, 그 이후에는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세 중에서 원천 징수되는 항목에는 배당금, 은행이자, 로열티 수입이 있다. 2010년 1월부터 짐바브웨 증권거래소에 등록되어있는 증권에 대해서는 10%, 다른 증권에 대해서는 15%가 부과된다. 짐바브웨 소재 은행에서 얻은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15%가 부과되며 2010년 1월부터 비 거주기업에 지불되는 로열티는 15%가 원천 징수된다.

다. 부가세

짐바브웨의 표준 부가세는 15%이며 몇몇 식음료에 대해서는 0%가 부과된다. 교육, 대중 교통,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붙지 않는다. 부가세는 수입 상품을 비롯한 광범위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부과된다.

11.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가. 외국인 투자 관련 외환통제 주요 내용

- 외환 통제: 짐바브웨 중앙 은행
- 투자 자본금 회수 및 배당금 송금
 - 자본금 회수 시 당초 자본 투자액의 100% 송금 가능
 - 세후 배당금의 100% 송금 가능(단, 짐바브웨 영구거주자는 RBZ의 별도 승인 필요)
- 외환 계좌(foreign currency account) 개설 및 외환의 처리
 - 외화 계좌는 시중 상업은행에 개설한다.
 - 과거 정부 지침에서는 수출 대금으로 획득한 외환의 15%~45% 내 일정범위의 금액을 RBZ에 매각하는 것을 의무로 정했으나 현재는 폐지되었다.

나. 차입

해외로부터 차입(offshore borrowing)은 인가업자(Authorized Foreign Exchange Dealer)를 통한 경우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단, 모든 해외 차입은 ELCC(External Loans Coordination Committee)의 승인이 필요하다. 짐바브웨 내 국내 차입은 별도의 승인 없이 허용된다.

자료: <http://global.korcham.net/Service/Country/appl/EconomyViewPrint.asp?nCountryCd=ZW>

V. Business 참고정보

1. 물가정보

구분	항목	가격 (US\$)
식품류	식사 1인분	\$ 10.00
	햄버거 (맥도날드 콤보 세트)	\$ 8.00
	닭 가슴살 1 kg	\$ 5.10
	우유 1L	\$1.50
	치즈 1kg	\$10.08
	사과 1kg	\$ 3.30
	감자 2kg	\$ 2.12
	맥주 330ml	\$ 2.00
	콜라 2L	\$ 0.96
	식빵 한 줄	\$ 1.00
	담배 1갑 (말보로)	\$ 2.00
차량/교통	가솔린 1L	\$ 1.51
	일반 대중교통 한달 티켓	\$ 21.00
	4륜 구동 차량 (VW Golf 1.4 90KW TDI 140CV or 동급)	\$ 19,000
통신	인터넷(6Mbps, 무제한)	\$ 53.75
여가생활	영화 티켓 1장	\$ 3.00
	생맥주 한잔	\$ 1.20
	카푸치노 한잔	\$ 2.23
	헬스클럽 한 달 회원비	\$98.00
아파트	1달월세 (방3개, 도심위치)	\$ 1,000.00

자료: www.numbeo.com

주: 2014년 3월 기준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에티켓

1) 약속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을 중요시 여겨 정해진 시간에 미팅 장소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2) 선물

선물을 준비하여 전달해 주면 짐바브웨 사람들은 매우 좋아한다. 대부분 짐바브웨에서 구입할 수 없거나 찾을 수 없는 것을 좋아한다. 선물을 줄 때에는 포장을 하여 주는 것이 예의이다. 만약 선물을 받았으면 그 자리에서 뜯어보는 것 보다는 나중에 혼자서 뜯어 보는 것이 좀더 바람직한 예절이다.

3) 인사

인사는 악수가 일반적이다. 여러 명이 있을 때에는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그 다음 사람과 인사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또는 미팅 장소에 온 순서대로 인사를 한다.

4) 복장

짐바브웨에서는 비즈니스 상담 시에 정장을 입던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다. 남성의 경우 대부분이 양복과 타이를 매며, 어두운 색깔을 선호 한다. 여성의 경우 대체로 보수적이거나 스타일리쉬한 것을 좋아하며, 고가의 보석이나 액세서리, 민소매 블라우스, 무릎 위로 올라오는 스커트는 가급적 피하도록 한다.

5) 문화 및 관습

대부분의 짐바브웨인은 친절하고 온화한 성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사성이 밝은 국민들이다. 다만, 면전에서 바로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길을 물었을 때도 모른다는 답변대신 엉뚱한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다.

6) 팁 제도

호텔 및 식당에서 총액의 약 5-10%를 주는 것이 관례이나, 반드시 팁 지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자료: 국제통상

나. 상담/계약 체결 시 유의 사항

상대방과 협상을 할 때에는 서면보다 직접 대면을 통해 친분을 쌓는 것이 훨씬 계약 성사에 유리하다.

3. 이주정착 가이드

가. 정부 등록(거주)

1) 동반가족 거주 허가

18세 미만 또는 고령의 구직 의사가 없는 퇴직자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동반가족 (직계 가족으로 제한하지 않음)은 동반가족 거주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거주 허가 신청서 2매, 보증인(신청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재산 증명, 가족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보증인의 서주 증명, 여권용 사진 2매, 영주권 신청 사유서가 필요하다.

2) 투자자 거주허가

미화 10만 달러 이상 투자하고, 주재국 현지파트너와 합작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투자자 거주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주재국 노동허가를 받아 3년 이상 거주한 기술자로서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려는 자 또는 미화 100만 달러 이상 투자하려는 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거주허가 신청서 2매, 사업계획서, 짐바브웨 투자진흥원 승인 서, 짐바브웨 기업 등록원의 법인등록 증명서, 현지 은행이 발행한 투자금 이체 증명서, 투자설비의 선화증권(B/L)또는 통관 서류가 필요하다.

거주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법인명의 기간 연장 신청서(만료 3개월 전 신청해야 함), 사업 진행 보고서, 법인 재정 증명, 투자설비 통관서류, 현재 채용 고용원 명단, 법인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이민국 요청 시)가 필요하다.

3) 임시 고용허가

현지에서 구할 수 없는 특수기술을 소지한 사람, 파견 언론인, 단기 계약에 의한 단기 취업자(12개월 미만), 짐바브웨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학술 연구자, 현지 교회로부터 고용된 종교인 등은 임시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거주 허가 기간은 최초 3년부터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고용허가신청서(고용주 제출), 거주허가 신청서(신청인 제출), 고용의향서(고용주, 직무, 보수 등 고용조건 명시), 고용주 명의 서한 (임시고용허가 요청, 고용기간 표시), 직무관련 자격, 경험 등을 입증하는 서류 (학위, 수료증, 추천서 등), 출생증명서 및 결혼증명서 사본(필요 시) 등이다. 임시 고용허가를 통해 입국하는 자는 배우자 및 18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할 수 있고 직업 또는 고용주를 변경할 때는 이민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나. 영주권

노동 허가를 받고 3년 이상 거주한 기술자로 미화 30만 달러 이상 투자한 자 또는 미화 100만 달러 이상 투자한 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허가 또는 동반가족 거주허가를 받고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또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단, 정부 소속 고용인은 공공사업위원회의 동의를 필요하며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및 NGO 종사자는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영주권 신청자격을 얻는다. 수속 기관은 이민국이며 영주권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면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영주권은 일단 발급되면 그 효력이 영속적이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도 있다. 중범죄를 저지르고 추방되는 경우, 짐바브웨 내무부가 기피인물로 지정하는 경우, 1년 이상 국외에 체재하는 경우, 본인이 포기하는 경우 등이 있다. 영주권을 포기하려면 영주권 포기 의사를 이민국에 통보하고 영주권을 반납하면 된다. 또한 주재국을 떠난 지 7년이 되지 않은 과거 영주권 소지자는 과거 거주사실 증명 및 재정증명을 제출하면 영주권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자의 국외 체재 허용기간은 1년이며 재입국 허가제도는 없다. 법적 지위 및 복지 혜택 면에서는 선거권 및 공직 취임권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짐바브웨 시민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18세 미만의 자녀는 1개의 영주권에 동반 가족으로 기재되며 별도의 영주권을 발급하지 않는다. 단 최초 영주권 발급 시 동반하지 않았던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추가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는 별도의 영주권이 발급된다.

다. 국적 제도

최초 거주허가를 받고 10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 소지자는 원국적 상실을 입증하면 짐바브 웨 국적을 부여한다. 짐바브웨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자녀에게 자동적으로 국적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중 국적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타국적 취득 시 짐바브웨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라. 이사 화물

1) 전기 및 전자제품

현지 전기 시스템은 220V-240V(전압)/50Hz(주파수)로 교류에서 직류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컴퓨터 등의 사용에는 문제가 없고 전력 주파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전열기 종류(전기밥솥, 전기담요, 커피 포트 등)는 사용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전력 주파수에 영향을 받는 모터 포함 냉장고, 세탁기, 오디오 등 전자제품의 경우 한국에서는 60Hz를 사용하므로 제품 사용 설명서에 50Hz/60Hz 병용 여부가 기재되지 않고 60Hz만 기입되어 있다면 현지에서는 모터 과열 등 오작동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냉장고 등 모터 등이 포함되어 주파수 차이에 영향을 받는 전자제품을 현지에서 장기간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변환기를 한국에서 구입해야 한다. 또한 전기 플러그 모양이 한국과는 달라 한국 전자제품을 당장 사용할 수는 없으나 현지에서 어댑터를 구입하면 사용할 수 있다. 현지 TV는 유럽식 PAL 방식을 채택하므로 NTSC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국산 TV는 사용할 수 없다. 영아를 동반할 경우 건기에는 날씨가 상당히 건조하므로 한국에서 사용하는 가습기를 가져오는 것이 좋으며, 겨울에는 밤 기온이 2℃까지 내려가므로 한국산 전기장판 및 전기담요가 필요하다. 빨래 건조 후 반드시 다려 입어야 하므로 성능이 좋은 국산 다리미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건전지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므로, MP3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등에 사용되는 전지 수요를 예측하여 충전용 배터리 및 충전기를 사전에 구입하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2) 가구, 비품 및 장식품

주택 임차료에 따라 가구(소파, 옷장 등)나 냉장고 스토브 등 기본 비품이 포함된 (furnished) 주택 임차가 가능하므로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냉장고 가구 등을 한국에서 굳이 무리하게 이삿짐 컨테이너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 한국과 현지가구 가격을 비교해 봐도 현지 가구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3) 자동차

한국에서 사용하던 중고차를 이삿짐에 포함시켜 가져올 경우, 한국에서는 좌측 핸들에 우측통행이므로 현지에서 운전할 때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현지에서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우측 핸들을 사용하는 일본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는데, 일본 내 거주하는 한국인 중고자동차 수출업자(www.exportcarsjapan.com)에게 문의가 가능하다. 싱가포르에서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약 1~2개월이 소요된다. 혹은 인접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직접 가서 현장에서 매물을 확인하고 중고차를 구매하여 국경을 통과하는 방법도 있다.

현지 교민이나 수입업자들은 주로 싱가포르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 이유는 싱가포르에서는 일정 연수가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중고차 매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일본이나 싱가포르에서 중고차를 수입하게 되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더반까지 운반되며 현지 에이전트에게 하라레까지 운송을 의뢰해야 한다. 그 비용은 미화로 약 1,500 달러 정도가 소요된다.

4) 이사회물 탁송 및 보험

이사 화물 탁송 시 Door-to-Door 또는 Door-to-Port 방식이 있으나 한국에서 보낼 경우 Door-to-Door Service가 유리하다. 한국에서 이사회물 탁송서류(B/C) 작성 시, 현지 도착 시 별도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계약서 상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요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5) 주방기기

하라레는 해발 1,500m 에 위치한 도시이므로 밥을 지으면 설익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용하는 압력밥솥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칼 식용 가위 등 주방 기기는 현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품질이 떨어지고 수입품은 고가이므로 한국에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 식품점에서 판매하는 1회용 나무젓가락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젓가락도 비싸므로 국산 젓가락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

4. 생활여건

가. 주거 여건

1) 주택 사정

신규주택 건설이 부진하고 임차주택수가 줄어드는 추세여서 적절한 주택물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주택을 구할 때까지 일일 단위로 묵을 수 있는 Guest House를 이용할 수 있다. 교민들이 많은 거주지역은 주로 백인들이 거주하던 하라레시 북부 지역에 위치한 단독 주택촌이다.

주택 물색 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단전 단수가 잦은 지역인가의 여부와 방법 장치가 얼마나 잘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특히 강 절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 펜스와 자동으로 개폐되는 대문 방법용 경보기 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짐바브웨에서는 대체로 단전, 단수가 잦으므로 임차 주택의 발전기(Generator) 보유 및 지하수(Borehole) 활용 여부도 점검해야 한다.

2) 계약방법 및 유의사항

보증금 등은 임차계약 당시, 임대주 측과 상의해야 하며 계약서 내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경우 현지 관례 상 2개월 전에 미리 통보하는 것이 좋다. 계약하기 전 주택 및 가구상태를 직접 가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계약 종료 시 주택과 가구의 상태를 원상 회복해야 한다. 단,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것은 불필요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경우는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3) 가구 등 비품 포함 여부

기본 가구가 비치되어 있는 주택이 많으나, 임대인과의 교섭 여하에 따라 침대, 소파세트, 식탁 등이 추가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

나. 식품

1) 한국 식품 구입

짐바브웨는 한국 식품점이 없으며 전통 한국 음식은 구입하기 어렵다. 인접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부 물품을 조달하기도 하나, 운송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실질적으로 구입이 힘들다. 한국 교민이 운영하는 한국 음식점 및 중국 음식점에서 떡과 두부 등을 만들어 팔고 있다. 고춧가루, 고추장, 된장, 젓갈류, 건어물, 김, 조미료, 라면 등은 출국 시 사전에 충분히

구입하여 이삿짐에 포함시키거나 항공 수하물로 가져오는 것이 좋다.

2) 현지 시장 이용 시 참고 사항

Makro, Spar, TM, OK, Bon Marche 등 중소형 슈퍼마켓의 이용이 일반적이거나 공산품은 없는 것이 많고 가격 폭등 등을 이유로 품귀 현상이 잦다. 공산품의 경우 한달 사이에 가격이 3~4배까지 폭등하는 경우가 많다. 채소와 과일류는 국내보다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 중국 배추, 무, 파, 마늘, 고추, 양상추, 사과, 서양배, 오렌지, 바나나, 복숭아, 망고 등 매우 다양하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햄, 우유, 버터, 치즈 등의 육류 및 낙농품 역시 한국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신선한 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 한국과 다른 점은 목축이 가능한 돼지고기나 소고기보다 사료를 사용해야 하는 닭고기가 더 비싸다는 것이다. 짐바브웨는 내륙국이므로 수산물이 귀해서, 인접국인 모잠비크에서 새우 등 해산물을 수입, 냉동식품 형태로 판매하고 있다. 국내산 민물 생선인 송어나 틸라피아 (Tilapia)를 구입할 수 있으나 역시 먼 거리로 인해 구입이 쉽지만은 않다.

다. 위생 및 보건

하라레 시의 상수도는 석면으로 제조된 파이프를 통해서 공급되므로 식수는 가급적 식품점에서 병에 든 것을 사먹거나 수질 검사로 적합 판정을 받은 지하수 이용이 권장된다. 또한 외부에서 의복을 건조시킬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빨래에 망고 파리(Mango Fly)가 알을 낳으면 알이 피부에 닿았을 때 사람의 몸을 파고 들어가 구더기가 되어 나온다. 집안에 망고나무가 있으면 반드시 정기적으로 소독을 해야 한다. 또한 푸씨 파리(Putsi Fly)의 침이 신체에 닿을 경우 통증을 일으키므로 입기 전 반드시 다려 입어야 하며 다림질이 여의치 않으면 드라이어에서 빨래를 건조시켜야 한다.

또한 의료지원 혜택은 도시 지역에 편중, 국토의 1/4이 해발 1,000m이상의 고지에 있고 인구 밀도가 높은 대부분 도시들이 서늘한 고지에 위치하고 있어 말라리아 등 열대성 전염병 감염률이 타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비교적 낮은 편이다. 그러나 80년대 AIDS의 발병이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1백만 명 이상이 희생될 만큼 감염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가 되어 있어 최대 위협이 되고 있다.

라. 교육

1) 초등, 중등, 고등 교육

□ 학제 개요

짐바브웨의 학제는 영국식으로서 3학기제이다. 1월에서 4월, 5월에서 8월, 9월에서 12월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

사립 및 국공립학교 다수 소재하고 있으며, American International School도 있다. 사립학교가 국공립학교보다 학비가 3-4배 정도 비싼 편이나 시설, 교육방식, 교사수준 등에서 월등 하다.

짐바브웨 초등교육은 6~12세까지의 교육을 담당하며 기간은 7년이다. 중등교육은 14세부터 시작하고 교육기간은 6년이다. 수도 하라레에 있는 짐바브웨 대학은 매년 10,000명의 신입생을 받아들이고 있다. 스미스 백인정권 시대에는 남아프리카의 아파르트헤이트(인종격리)에 비슷할 만큼 백인과 흑인의 인종 차별이 심하여 하라레의 로디지아대학에서는 흑인학생을 입학시켰으나, 중학교까지는 전혀 다른 학교로 분리되어있었다.

□ 학교 현황

하라레 시내에는 영국식 학제로 운영되는 사립학교들이 있으며 엄격하게 학사 운영이 되는 등 교육 수준도 높은 편이지만, 최근 경제사정의 악화로 우수한 교사들이 사립 학교를 많이 떠남으로써 교육의 질적인 수준이 저하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하라레 시에는 미국계 국제학교도 있다. 1992년 설립되었으며 미국식 학제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과정이 개설되어 있고 학생수는 약 400명이다. 학비는 초등학교는 연간 11,200 달러, 고등학교는 15,820 달러로 매우 비싼 편이며 일시불 또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사립학교가 국공립 학교보다 학비가 3~4배 정도 비싼 편이지만 시설, 교육 방식, 교사 수준 등에서 월등한 차이가 난다. 입학 시 필요한 서류는 직전학교 재학증명서가 있으며, 3학기 모두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등록 및 입학을 해야 한다. 교민들이 자체로 운영하고 있는 한글 학교도 있는데, 시내 한인 교회에서 한국의 초등학교 과정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오전 9시 30분 ~ 오후 12시 30분)에 가르치고 있다.

자료: 국제통상

2) 대학교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자여야 하며 각 대학에서 자체 실시하는 입학 시험 성적으로 선발된다. 하라레시에는 국립 짐바브웨 대학이 있는데 2학기제이며 학비가 저렴한 편이다.

3) 어학교육기관 및 학원

Special College라는 사립 어학 전문기관이 있으며 British Council을 통해 국제적 어학 시험(TOEFL, Pitman Exam, Cambridge Test 등)에도 응시가능

마. 언론매체

인쇄 매체로는 The Herald, The Chronicle 등의 일간지와 The Independent, The

Financial Cazette, The Sunday Mail 등의 주간지가 있다.

방송 매체로는 국영 TV 채널인 ZBC가 유일한 채널이며 영어와 현지 Shona어 등으로 방영된다. 위성 TV를 통해 CNN, BBC 등을 시청할 수 있으며 셋톱박스를 구입하여 설치하면 KBS, YTN, 아리랑TV도 시청할 수 있다. 라디오는 2개의 AM 채널과 2개의 FM 채널이 있다.

5. 취항정보

인천으로부터 취항하는 짐바브웨의 수도 하라레행 직항 항공편은 없으나, 외항사 이용 시 경유편을 이용할 수 있다.

- 에미리트 항공
 - 인천-두바이-하라레-두바이(1박)-인천

- South Africa Airline
 - 인천-홍콩-요하네스버그-하라레-요하네스버그-홍콩-인천

- Air Zimbabwe
 - 인천-북경-하라레-북경-인천

그 외에도 케냐,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의 아프리카 주요도시에서 환승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항공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6. 출입국 및 비자제도

1) 입국 요건

- 사증필요
 - 도착사증(30일, 수수료: 단수사증 30미 달러, 2회 입국 복수사증 45미 달러)
- Transit 조건
 - 확정티켓 소지, 짧은 시간(6시간)은 공항 내 체류
 - 장시간 대기 필요 시에는 공항 외부 호텔에 체류 가능하나 단수사증을 발급 받아야 함.
- 여권잔여기간: 6개월 이상

2) 입국비자

우리나라와는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서 입국 시 사증발급을 받거나 주한짐바브웨명예영사관에서 단수사증(30일)을 발급 받아야 한다.

□ 주한 짐바브웨명예영사관 연락처 및 구비 서류

- 연락처
 - 주소: 서울 송파구 삼전동 11 태성빌딩 3층
 - 전화 및 팩스: 전화 425-3624, 팩스 425-3272
- 구비서류: 여권원본 및 사증 신청서
 - 비즈니스 사증 발급 시 초청장이나 비즈니스 관련 서류
- 수수료: 미화 30달러
- 관광비자
 - 발급대상: 관광객, 친지 방문 등 사적 목적의 단기 방문자
 - 발급절차: 공항에서 최초 30일 사증을 발급하며, 희망 시 이민국에서 연장가능
 - (두 번 연장가능하며, 최초 입국일로부터 최장 3개월 체류 가능)
 - 수수료: 미화 \$30, 이민국 연장 시 추가 수수료 없음.
- 상용 비자
 - 외교관 여권 및 관용여권 소지자
 - 공항에서 입국 시 비자 발급 가능하며 수수료 면제
 - 일반여권 소지자

- 주한짐바브웨명예영사관에서 비즈니스 사증 비자 발급
- 공항 도착사증 발급(초청장이나 비즈니스 관련 서류 요구 할 수 있음)
- 보통 1개월 유효한 비자를 발급하며 관광비자와 같이 연장 가능
- 비자 수수료 미화 30달러

3) 출입국시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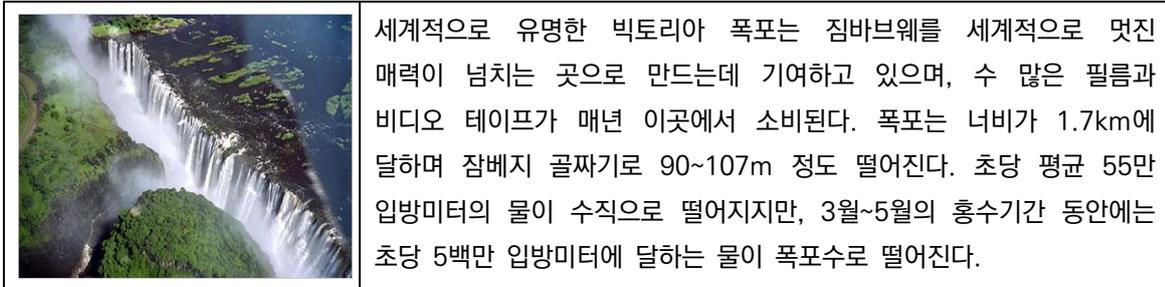
내, 외국인의 짐바브웨 출국 시 외환소지한도는 원칙적으로 1,000미불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입국 시 세관신고서에 소지금액을 기재해야, 동 신고금액 범위 내 외환 반출이 가능하다. 일반 관광 기념품 반출은 가능하나, 상아, 동물가죽 및 귀금속 원석 등의 경우는 구입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동 품목 구입시 반출 가능 여부 및 필요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좋다.

자료: 국제통상

7. 관광, 호텔, 식당, 통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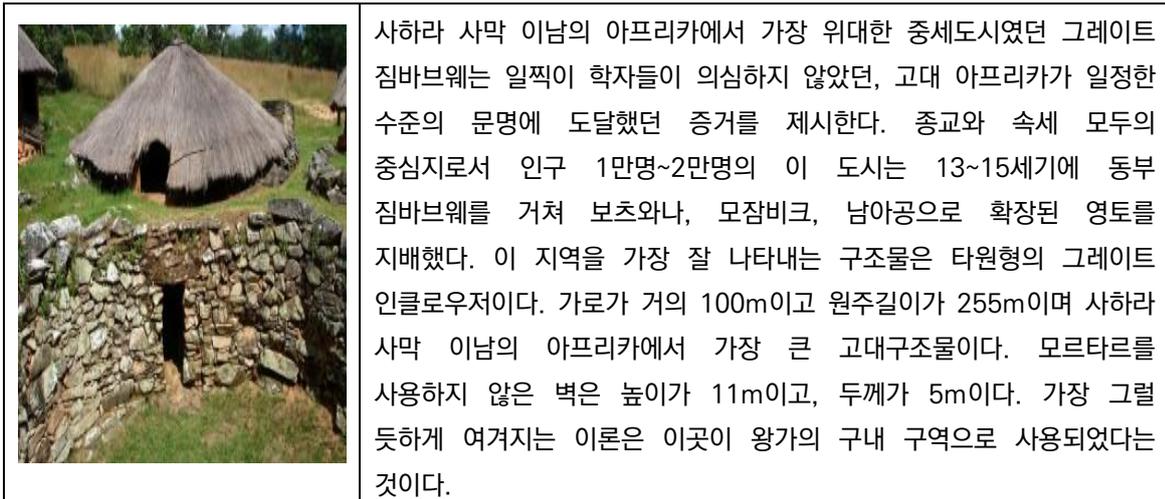
가. 관광명소

□ 빅토리아 폭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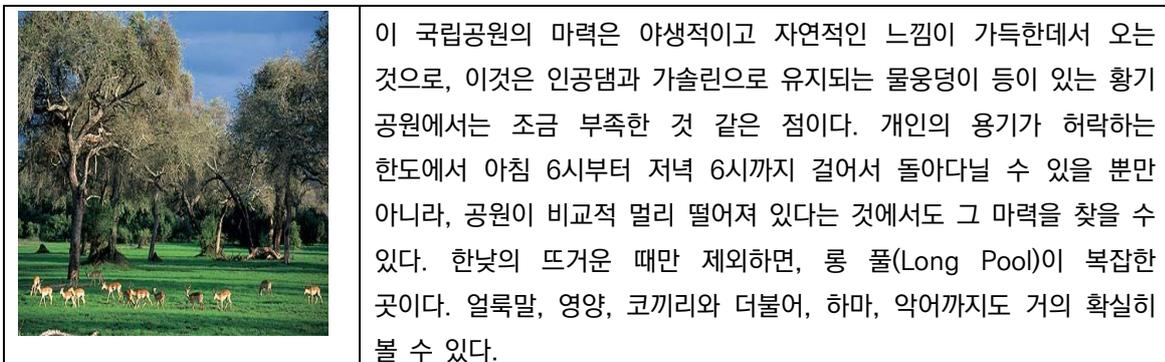
세계적으로 유명한 빅토리아 폭포는 짐바브웨를 세계적으로 멋진 매력이 넘치는 곳으로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수 많은 필름과 비디오 테이프가 매년 이곳에서 소비된다. 폭포는 너비가 1.7km에 달하며 잠베지 골짜기로 90~107m 정도 떨어진다. 초당 평균 55만 입방미터의 물이 수직으로 떨어지지만, 3월~5월의 홍수기간 동안에는 초당 5백만 입방미터에 달하는 물이 폭포수로 떨어진다.

□ 그레이트 짐바브웨 유적 (Great Zimbabwe National Monu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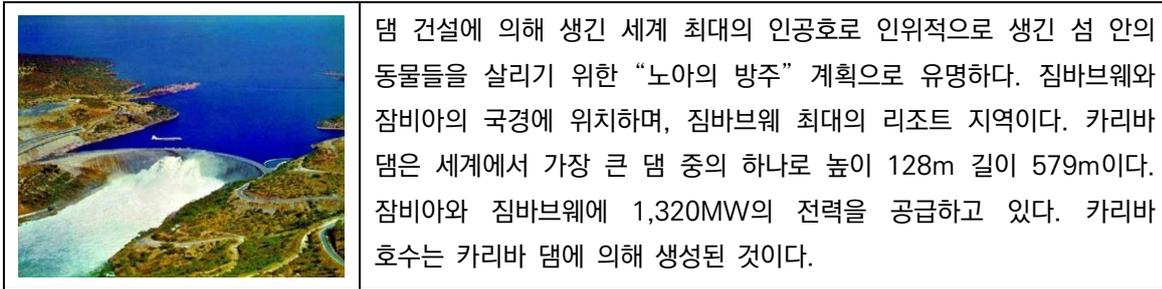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 가장 위대한 중세도시였던 그레이트 짐바브웨는 일찍이 학자들이 의심하지 않았던, 고대 아프리카가 일정한 수준의 문명에 도달했던 증거를 제시한다. 종교와 속세 모두의 중심지로서 인구 1만명~2만명의 이 도시는 13~15세기에 동부 짐바브웨를 거쳐 보츠와나, 모잠비크, 남아공으로 확장된 영토를 지배했다. 이 지역을 가장 잘 나타내는 구조물은 타원형의 그레이트 인클로우저이다. 가로가 거의 100m이고 원주길이가 255m이며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고대구조물이다. 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않은 벽은 높이가 11m이고, 두께가 5m이다. 가장 그럴 듯하게 여겨지는 이론은 이곳이 왕가의 구내 구역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 마나 풀즈 국립공원 (Mana Pools National Park)



이 국립공원의 매력은 야생적이고 자연적인 느낌이 가득한데서 오는 것으로, 이것은 인공담과 가솔린으로 유지되는 물웅덩이 등이 있는 황기 공원에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은 점이다. 개인의 용기가 허락하는 한도에서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걸어서 돌아다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원이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에서도 그 매력을 찾을 수 있다. 한낮의 뜨거운 때만 제외하면, 롱 풀(Long Pool)이 복잡한 곳이다. 얼룩말, 영양, 코끼리와 더불어, 하마, 악어까지도 거의 확실히 볼 수 있다.

□ 카리바호 (Kariba)



나. 호텔 /식당 정보

1) 수도 하라레

□ 미클즈 호텔

- 주소: Corner 3rd street / Jason Moyo Avenue Harare Zimbabwe
- 전화: 263-4-707-721
- 팩스: 263-4-707-753
- 요금: 최저 240 달러

□ 더 레인보우 타워 호텔

- 주소: Pennefather avenue Harare, Zimbabwe
- 전화: 263-4-772-633
- 팩스: 263-4-774-648
- 요금: 최저 80 달러

□ 뉴 엠베서더 호텔

- 주소: 88 Union street Harare Zimbabwe
- 요금: 최저 110 달러

□ 홀리데이 인

- 주소: Samora Machel Avenue P.O. Box 7 Harare, Zimbabwe
- 전화: 263-4-795-611
- 팩스: 263-4-738956
- 요금: 84 달러

□ 크라운 플라자 호텔

- 주소: 54 Park Lane Harare, 2445 Zimbabwe
- 전화: 263-1-704-501
- 팩스: 263-4-791920
- 요금: 최저 106 달러

2) 빅토리아 폭포

□ 엘레판트 힐 인터컨티넨탈

- 주소: P.O. Box 300 Victoria Falls, Zimbabwe
- 요금: 최저 132 달러

□ 킹덤 호텔

- 주소: P.O. Box 90 Victoria Falls, Zimbabwe
- 전화: 263-13-442-75
- 팩스: 263-13-423-58
- 요금: 105 달러

□ 사파리 로지

- 주소: Stand 471 Squire Cummings RD Victoria Falls
- 요금: 최저 160 달러

3) 한인 식당

□ 신라

고급스럽고 세련된 분위기의 레스토랑이며, 점심은 메뉴를 고를 수 있지만 저녁은 코스로만 제공된다. 다른 레스토랑에 비해 가격은 비싼 편이나 인테리어가 깔끔하고 고급스럽다. 코스 메뉴는 초밥, 신선로, 숯불 갈비(돼지고기, 치킨, 해산물, 소고기 중 택일), 차 또는 커피가 제공된다.

- 주소: 15 Connaught Road, Avondale, Harare
- 담당자: 강현자, 이기형
- 연락처: 304-512
- 이메일: leephigh@africaonline.co.zw

□ 액터

현지 다른 레스토랑에서 볼 수 있는 기본 양식 메뉴를 제공하며, 카푸치노가 유명함. 세련되고 깔끔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며 노래방 시설도 있다.

- 주소: 7 kenny Road, Avondale, Harare
- 담당자: 허맹호 091-348-347
- 연락처: 797-815
- 이메일: greenhuh@hanmail.net

□ 킹스 테이블

백반 및 각종 찌개, 분식 등을 맛볼 수 있으며 약간은 소박한 분위기의 식당이다. 한국의 일반적인 백반집과 비슷하다.

- 주소: 10 Elsworth Avenue, Belgravia, Harare
- 담당자: 박영숙, 남궁현
- 연락처: 707-157
- 이메일: shane114@naver.com

8. 출장 시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가. 기후

짐바브웨는 아프리카대륙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후는 아열대 기후로 연평균 강우량은 700mm정도이다. 우기철(여름)은 11월에서 익년 3월까지, 건기철(겨울)은 4월에서 10월까지이며, 10~11월경(평균 16~27℃)이 가장 무더우며, 6~7월경(평균 7~21℃)이 가장 춥다. 겨울철의 경우 아침이나 밤에는 쌀쌀한 편이고 취침 시에는 전기담요를 사용해야 할 정도로 다소 추운 편이나 낮 동안은 따뜻하다. 그리고 여름철의 경우 한낮에는 30℃ 이상 되는 경우가 많으나 전 국토의 25%가 해발 1,000~1,500m의 고원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다소 무더워도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하다. 다만, 관광지로 유명한 빅토리아 폭포와 카리바 호수 같은 강가, 저지대는 무더위가 심하며 모기 또한 많아서 말라리아 감염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나. 시차/근무 시간

1) 시차

짐바브웨는 우리나라보다 7시간 느리다. 예를 들면, 한국이 17:00일 때 하라레는 같은 날 10:00시이다.

2) 근무 시간

짐바브웨는 통상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한다. 점심시간은 오후 12시 사이에서 2시이며, 공공기관의 근무시간은 각각 다르나,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식당 및 상점은 토, 일요일도 영업하는 곳이 많음

다. 도량형

짐바브웨는 우리나라와 같이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다. 주요 도량형 환산표는 아래와 같다. 사용 전압은 220V/50Hz또는 240V/50Hz로 사전에 조사하여 변압기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길이

구 분	마일(mile)	야드(yard)	피트(feet)	인치(inch)	미터(m)
1 m	0.0006	1.0936	3.2808	39.37	1
1 inch	0.000016	0.0278	0.0833	1	0.0254
1 feet	0.00019	0.3333	1	12	0.3048
1 yard	0.0006	1	3	36	0.9144
1 mile	1	1,760	5,280	63,360	1,609.3

무게

구 분	파운드(lb)	온스(oz)	그레인(gr)	톤(ton)	킬로그램(kg)
1 kg	2.20459	35.237	15,432	0.001	1
1 ton	2,204,559	35,273	1,543,2000	1	1,000
1 gr	0.00014	0.00228	1	-	0.00006
1 oz	0.0625	1	437.4	0.000028	0.02835
1 lb	1	16	7,000	0.00045	0.45359

라. 출입국 비자

관광 비자는 짐바브웨 하라레 공항 또는 국경 출입국 사무소에서 즉석에서 입국비자 취득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1인당 US\$30, 멀티 비자는 US\$45, 체재기간은 약 1개월 부여되나, 특별한 경우 최장 90일까지 허가된다.(왕복 항공권 확인)

우리나라에서 짐바브웨 비자를 사전 취득하기 위해서는 동경에 상주하는 짐바브웨 대사관(한국에 비상주)을 통하여 비자를 취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짐바브웨 입국 시에는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편리하다.

입국 시 개인별 소지 가능한 외환은 무제한이나, 입국 시 공항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출국 시 동 신고금액 범위 내에서만 반출이 가능하다.(미 신고 시, 미화 500불 이상은 반출이 불가)

마. 교통

1) 대중교통

□ 버스

각 도시간을 운행하는 시외버스가 있으나 비위생적이고 비안전적이며, 일부 도시간에는 기차가 운행되고 있으나 유류 부족, 잦은 철로 고장 등으로 인해 운행이 비정기적이므로 이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시내에는 일반 현지인 대중 교통으로 버스에 해당하는 미니 버스(15인승 정도)가 운행되고 있으나 이 역시 청결하지 못하여 외국인은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다.

□ 택시

콜택시 형태로 운영하는 영세 개인택시가 꽤 있으나 요금이 다소 비싼 관계로 이용이 많지는 않고, 현지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가지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미터기를 장착한 택시와 미터기를 장착하지 않고 요금을 합의하여 책정하는 택시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 반드시 거리와 요금을 따져본 후 적당한 가격인지 확인하고 탑승하는 것이 좋다.

□ 항공편

항공노선은 매일 수도 하레레와 주요 관광지인 빅토리아 폭포 간을 운행하는 국내선(40~120인승 정도의 규모) 외에 짐바브웨에서 남아공으로 운항하는 국제편이 매일 있으며, 그 외에 인근 국가(잠비아, 말라위, 모잠비크, 케냐 등)으로 운항하는 항공편도 1주일에 2-3편정도 있다. 특히, 국내선 항공의 경우 잦은 연착과 지연출발, 그리고 가끔 결항되는 수가 있으니 다른 국제선과의 연결 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예약하는 것이 좋다.

2) 도로교통

짐바브웨는 과거 영국 식민통치의 영향으로 차량이 좌측운행(즉, 오른쪽 핸들)을 하며 일반적으로 전국 도로사정은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간혹 도로보수가 잘 안되어 움푹 패인 도로가 있으므로 노면이 물에 잠겨 잘 보이지 않는 우기철과 야간 운전시에는 아주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전력난이 아주 심각해 대부분의 가로등이 꺼져 있거나 아예 없기에 야간운전은 가능한 한 삼가야 한다.

시내에는 일방통행으로 지정된 곳이 많고, 특히 한국과 달리 짐바브웨는 차량이 좌측 운행을 하므로 교차로에서의 운전 시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한국과는 달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경우, 대부분 신호등에서는 우회전 신호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마주 오는 직진 차량이 통과한 후 여유가 있을 때 우회전해야 하므로 우측 통행에 익숙한 한국인들은 사고위험이 많기에 매우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잦은 정전으로 인해 신호등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와 또 고장으로 인해 신호등 한쪽 일부만 작동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교차로에서는 일시 정지 내지 방향을 살펴보고 운행해야 한다.

짐바브웨의 운전 관습은 양보 운전이 생활화되어 있다. 도로 곳곳의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우선 멈춤을 한 후 우선 통행권이 있는 방향의 차량이 지나간 후에 운전해야 하며, 약 100미터정도 전방 거리에서 차량이 달려올 경우라도 멈춰 섰다가 이 차량이 지나간 후에 운행해야 할 정도로 양보운전이 보편적이다.

바. 통신

짐바브웨 핸드폰은 GSM 방식으로, 심 카드를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통신 회선의 제한으로 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 통신 회선 확장과 인터넷 전용선의 보급이 차차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한국으로 전화를 걸 경우 서울 지역 유선전화 또는 핸드폰은 잘 연결되지만 서울 외 지역으로는 전화 연결이 잘 되지 않는 편이다.

짐바브웨 통신 환경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고, 인터넷 수요고 급증하고 있다. 통신부문의 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통신부이며, 음니스트리트와 포스트 앤 텔레커뮤니케이션사(PTC)에 의해 통신장비 형식승인과 장비시험등을 수행하고 있다. PTC는 셀룰러 서비스, 사설망 등을 제외한 통신서비스를 독점 제공하고 있는 통신 사업자이며, 고정기 간망 19만 1,000본호선을 보유하고 있다.

아프리카 원이라는 아프리카 대륙의 42개 도시를 잇는 해저케이블 구축계획에 참여하고 있다. 셀룰러 전화서비스는 PTC에 의해 1996년 시험 서비스되었다. 인터넷 서비스는 1996년 글로벌 원이 PTC를 위한 인터넷 시스템을 설계, 구축하였다. 우탄데 인터넷 서비스, 사마라 서비스 등과 같은 서비스 제공업자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통신망의 불안으로 속도가 느리다. 전국방송을 실시하는 국영방송사인 짐바브웨 브로드캐스팅사(ZBC)가 있다.

자료: 국제통상

사. 공휴일

- 1월 1일: 신정
- 4월 18일: 독립기념일
- 5월 1일: 노동자의 날
- 5월 25일: 아프리카의 날
- 8월 8일: 영웅의 날
- 12월 22일: 통합의 날

○ 12월 25-6일: 크리스마스

*해마다 날짜가 변하는 휴일: 성금요일~ 부활절(Good Friday to Easter Monday)

아. 여행시 유의사항

하라레 공항 및 짐바브웨 국제 공항 입국 시에는 반드시 소지하고 있는 외화의 액수를 성실히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환전 후 받은 영수증은 출국 시까지 잘 보관하는 것이 좋다. 짐바브웨 현지 통화는 출국 시 가지고 나가서는 안되며, 남은 현지 통화는 공항의 은행에서 모두 미국달러나 기타 외국 통화로 다시 환전하는 것이 좋다. 재환전 시 현지 통화를 환전할 때 받은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패키지를 이용한다면, 가급적 현지 통화로 바꾸지 않는 게 낫다. 짐바브웨 현지의 많은 호텔에서는 외국 통화(미달러, 유럽 통화)나 신용카드를 선호하고, 현지 통화는 아예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9. 유관기관 웹사이트

짐바브웨 정부 웹사이트	http://www.zim.gov.zw/
짐바브웨 외무부	http://www.zimfa.gov.zw/
짐바브웨 재무부	http://www.mofed.gov.zw/html/acts.shtm
짐바브웨 국세청	http://www.zimra.co.zw/
짐바브웨 의회	http://www.parlzim.gov.zw/
짐바브웨 준비 은행	http://www.rbz.co.zw/
짐바브웨 투자진흥청	http://www.zic.co.zw/
짐바브웨 제조업,산업 연합	http://www.czi.co.zw/
짐바브웨 상공회의소	http://www.zncc.co.zw/
짐바브웨 관광청	http://www.zimbabwetourism.co.zw
짐바브웨 국립공원 관리청	http://www.zimparks.com/
ZANU-PF(현 집권 여당) 웹사이트	http://www.zanupfpub.co.zw/
짐바브웨 국제 전시 센터	http://zitf.mweb.co.zw/
MWEB Zimbabwe (짐바브웨 포털사이트)	http://www.zta.co.zw/
New Zimbabwe (온라인 뉴스 사이트)	http://www.newzimbabwe.com/
짐바브웨 NGO 네트워크	http://www.kubatana.net/

10. KOTRA 무역관 안내

현재 짐바브웨에는 KOTRA 무역관이 존재하지 않으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무역관에서 짐바브웨를 비롯하여, 남아공, 레소토, 보츠와나, 나미비아, 스와질랜드, 말라위, 마다가스카르, 잠비아를 관할하고 있다.